

활동 공유회

아들과 학교! 서울과 경기!

마을교육공동체로 서로 물들다

일시

2016. 8. 18. (목) 14:00~18:00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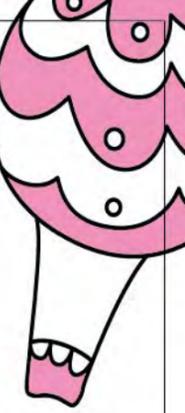
서울혁신파크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번지))

주최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주관

한국교원연수원





활동공유회 일정

시 간	일 정	담 당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식	진행 강동수 장학사 (서울시교육청) 인사 김우경 장학관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김경관 장학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꿈의학교팀)
14:10~15:30	“마을교육공동체로 서로 물들다” 토론 콘서트	진행 이창림 교장 (민주주의기술학교) 발제 이병곤(경기도교육연구원 전문연구원) 유창복(서울시청 협치자문관) 토론 홍인기(상탄초등학교 교사) 김영삼(서울시교육청 장학사)
15:30~17:00	“우리는 왜? 마을교육공동체를 하는가?” 분임별 나눔 (10개)	퍼실리테이터 10명
17:00~18:00	“함께 나누고 서로 물들어요” 전체 모음과 나눔	진행 이창림 교장 (민주주의기술학교)

마을과 학교!
서울과 경기!

마을교육공동체로 서로 물들다



차례

-  **발제 1** 마을교육공동체를 바라보는
한 연구자의 ‘자의적 시각’과 ‘허술한 전망’ __01
이 병 곤 (경기도교육연구원 전문연구원)
-  **발제 2** 교육 공공성의 위기와 마을학교 __11
유 창 복 (서울시 협치자문관)
-  **토론 1** ‘교육 공공성의 위기와 마을학교’에 대한 몇 가지 의견 __25
홍 인 기 (상탄초등학교 교사, 영주산마을공동체)
-  **토론 2** ‘자의적 시각’과 ‘허술한 전망’에 대한 몇 가지 의견 __31
김 영 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  **읽기자료 1** 마을교육공동체를 말한다 __37
이 병 곤 (경기도교육연구원 전문연구원)
-  **읽기자료 2** 마을공동체 정책과 지역사회 시민생태계 __69
유 창 복 (서울시 협치차문관)
-  **읽기자료 3** 왜 마을교육공동체가 필요한가? __79
홍 인 기 (상탄초등학교 교사, 영주산마을공동체)
-  **읽기자료 4**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__89
서 용 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마을과 학교!
서울과 경기!

마을교육공동체로 서로 맞닿는다



발제 1

마을교육공동체를 바라보는 한 연구자의
‘자의적 시각’과 ‘허술한 전망’

이 병 곤

경기도교육연구원 전문연구원



마을교육공동체를 바라보는 한 연구자의 ‘자의적 시각’과 ‘허술한 전망’

이 병 곤

경기도교육연구원 전문연구원

오늘 우리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내려는 동료들과 만나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시는 길 내내 가슴 벅차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쪽에 찝찝한 기분을 여전히 남겨둔 채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마을교육공동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또렷한 상이 맺히지 않는 답답함 때문일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느낌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마을’ ‘교육’ ‘공동체’ 모두 무너지고 없는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셋을 모두 합쳐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시도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 잠정적 정의와 세 가지 특징

2015년부터 소수의 이론가와 실천가들이 힘을 모아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 개념을 세워보려 노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¹⁾ 저는 앞선 논의와 비슷한 선상에서, 하지만 약간 결이 다른 방식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마을교육공동체는 “공교육이 마을과 연계를 맺어가며 교육의 본령을 회복하려는 교육혁신의 핵심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의는 아주 느슨하지요. 교육 진영에서 마을을 바라보는 자의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논의가 풍부해지는 시점이 오면 마을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의적 정의가 나타나길 기다려봅니다. 양자가 합쳐져서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겠지요. 그 때까지는 불만족스럽지만 잠정적 정의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새로운 교육운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중심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입니다. 한국에서 ‘공부’는 곧 ‘교재(=텍스트)의 내용’으로 대표되는 지식을 학생이 개별적으로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로 인식됩니다. 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이런 도식적 개념에서 벗어나기를 꿈꿉니다. 공부의 내용과 대상을 텍스트에 담긴 것으로 국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진짜 공

1) 가장 대표적인 저서는 서용선 외(2016),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살림터. 또한 학교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을 피하려는 시도는 다음 자료를 참조. 박주희 외(2015), 학교협동조합, 현장체험학습과 마을교육공동체를 잇다, 살림터.

부 대상은 세상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학생들은 또래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며 탐구를 하거나 마을 밖으로 나가서 텃밭을 일구거나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다니면서 현상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주변을 알아갑니다. 공부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부에 몰입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인간)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체제는 본말전도 현상이 아주 심했습니다. 툭 깨놓고 말해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한민국 상위권 대학, 또는 최소한 ‘인 서울’ 대학으로의 진입입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똑같은 목표를 세워놓고 죽어라 경쟁했습니다. 안정적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고, 여기에 맞춰 학교를 선택하거나 공부 전략을 짜고, 비인간적 경쟁을 조장하거나 방조합니다. 모든 교육 행위가 학생의 자연적 본성, 의지, 인격에 반합니다.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지요. 마을교육공동체는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놓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마을도, 교육도, 공동체도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닐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적이나 지역교육청의 사업계획서 목표달성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학생의 삶과 인격적 성장을 위해 학교와 마을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우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무작정 위로 내달지 않고 차분히 옆을 바라보겠다는 교육철학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위만 바라보면서 달리는 사회체제는 모든 이에게 ‘경쟁’을 당연시하고 내면화하도록 다그칩니다. 하지만 옆을 바라보는 순간 동료나 사람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소중한 ‘공간’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공간 안에서 개인은 잠자고, 쉬고, 놀고, 먹고 마시며, 가족과 친구를 만나며 사귀고, 노동하고 생산하며, 가르치고 배우며, 갈등하고 화해하며, 태어나고 늙어갑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이 쌓여갑니다. 다른 한편으로 옆을 바라본다는 일은 지역사회와 경계를 이루던 학교 담장을 낮추거나 헐어버리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을과 교육은 연계, 즉 네트워킹을 이뤄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너무나 오랜 세월 분리되어 있던 우리나라에서는 양자 사이의 칸막이 허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 견고한 격벽을 슬기롭게 허물고 눈부신 협력을 일궈낸 사례들을 우리는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그런 경험과 지혜를 더 폭넓게 나눠야 할 때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의 잠정적 정의**
공교육이 마을과 연계하여 교육의 본령을 회복하려는 교육혁신의 핵심 과정
- **세 가지 특징**
 - 1) 텍스트 중심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 2) 학생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인간주의 교육이다.
 - 3) 사람과 지역을 재발견하며, 네트워킹을 통해 교육생태계를 구축한다.



2. 교육개혁의 방향성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이의 관계 설정

<학교교육 제4의길>이란 책이 있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을 열어 보이는데 명성이 높은 앤디 하그리브스 교수와 데니스 셸리 교수가 함께 쓴 책인데,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전문가가 세계 교육계에 제시한 미래교육의 대안을 읽어보았습니다. 논의의 디테일을 싹 빼고 결론만 제시하면 우리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 △ 교육 비전을 제시하여 영감과 통합을 이끌어내라
- △ 교사의 위상을 높여줘라
- △ 시민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케 하라
- △ 학생을 변화의 파트너로 대하라
- △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를 사려 깊게 조직하라
- △ 단순한 문해력, 수리력 증진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과를 편성하라
- △ 고부담 일제고사를 폐지하라

어떠신가요? ‘쌀로 밥을 짓자’는 말처럼 너무 당연한 제안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지요. 실행가로서의 교육활동가는 항상 ‘어떻게’라는 실천적 질문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그리브스와 셸리 교수는 일곱 가지의 교육혁신에 대한 요소를 잘 짚었지만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교육원리가 실현되는 교육체제를 만들 수 있을지 명쾌한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들을 폄하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서의 후반부에서 내놓은 방안이 ‘지속가능한 리더십’ ‘통합적인 네트워크’ ‘책무성에 우선하는 책임감’ ‘다양성의 존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교육개혁의 통합성을 높이는 ‘네 가지 촉매’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상당히 단순한 사람이어서 두 교수님이 제시한 일곱 가지 교육 원리에다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요소 한 가지를 더 첨가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시켜 보았습니다.



지나친 단순화이고, 억지스러운 견강부회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의 도표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마을과 교육이 올바르게 연결되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교육의 양상을 180도 바꿔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각각의 교육원리가 어떻게 마을교육공동체라는 활동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것의 교육적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씩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일은 잠시 뒷전으로 미루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주제를 상당기간 들여다 본 연구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교육이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마을이 지닌 풍부한 콘텐츠를 교육 장면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교수-학습의 본질이 크게 바뀌고, 다양한 유형의 교육경험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있음을 저는 목격하였노라고. 연구자의 언어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생생한 활동을 화석화하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표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낍니다만 저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실현 가능성을 확신합니다.

3. 그들은 ‘어떻게’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해 가고 있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교육이 가능해졌을까요? 지난 6개월간 현장을 수십 번 확인하면서 그 원인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전혀 학문하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어서 겸연쩍습니다만 ‘태초에 그곳에 선의를 지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혹은 자기 마을을 위해서 정의롭게, 인간답



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 분들이 필요를 느끼고 먼저 움직여서 작은 성과를 일궈나갔습니다. 새로 형성된 아파트 단지에서 자녀들에게 악기 하나라도 배우게 하려고 애를 쓴 젊은 엄마들이 거기 있었고, 마을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잘 가르쳐 보려고 노력한 교사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신을 시장으로 뽑아준 시민들에게 교육과 문화, 복지 혜택을 선사하려고 실천한 지자체장이 거기 있었지요.

두 번째 요인은 각자의 영역에서 애를 쓰고 헌신하던 사람들이 어느덧 지역에서 곁을 주고, 시선을 확대하다가 다른 분야에서 애를 쓰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그물코를 이뤄 또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합니다. 이렇게 하여 공립학교와 마을학교가 만났고,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만났으며, 평생교육을 실천하던 전문가들과 학교 중심으로 교육하던 전문가들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마을축제를 통해 어른과 어른, 단체와 단체, 어른과 아이, 동아리와 기관이 만났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몇 가지 뛰어난 요인들이 잠재해 있습니다. 이것들 사이에서 만남이 이뤄집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비현실적 조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물론 갈 길은 멀니다. 지역 내 그물코 작업은 미약하고, 불안하고,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결국 올바른 방향성이 세워진다면 시간의 투입과 주체의 헌신 정도에 따라 또렷한 성과를 드러낼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갈등의 조정과 고난의 견딤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가정을 이뤄도 갈등은 불거지게 되어 있지요. 하물며 조직과 조직 사이의 충돌이 빚어질 때는 사태가 더욱 복잡하게 꼬입니다. 지역사회는 결코 평화로운 공간은 아니며, 낭만적인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치밀한 미시적 정치 세계가 그 곳에 존재합니다. 뜻을 한데 모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원래 하려던 사업이 어그러지는 경험도 있습니다. 지역활동가는 그 모든 힘겨움을 견뎌냅니다. 대의를 보고 순간의 아픔을 참습니다. 때로는 돈만 대주고 상대방의 전문성을 믿으며 기다려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가 풀릴 때까지, 조례나 규칙이 만들어질 때까지, 혹은 누군가 큰 책임을 떠맡아서 결단을 내려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대의, 이것 하나만을 보며 지역에서 건디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위대한 실천가들입니다.

이밖에 다양한 요인들이 더 있겠지만 오늘은 위와 같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논변이었으나 마을교육공동체를 올곧게 가꿔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며, 최종 수혜자인 학생들의 삶을 가꾸는 길이고, 그간 팽개쳤던 소중한 지역 공동체를 바꿔가는 길이라는 점을 충분히 드러내보였다고 생각합니다.

4. 방법화 할 수 없는 방법론: 속성의 시간을 견뎌내라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마을교육공동체 연구 초기에 현장 분석을 통해 ‘일반적 방법론’이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태도였음이 단박에 드러났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일반적 방법론은 없습니다. 이것은 ‘방법화 할 수 없는 독특한 방법론’입니다. 또한 이것은 교육청이 앞장서서 선부른 정책화를 시도해서도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안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육전문가들이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으로 깊이 들어가서 활동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지역과 학교 사이의 화학적 결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지역사회에 교사, 학교 공간을 과감하게 내놓을 자원과 배포와 용기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꼭 성공시키고 싶다면 1~2년 사이에, 적은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공문 몇 장으로 사업성과를 냅름 달성하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큰 틀에서만 제시하세요. 그 다음은 지역사회의 역량에 맡기십시오. 교육 비전을 담은 악보를 보면서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연주할 전문적 실천가들의 출현과 활약을 기다리십시오. 다행히 그들이 나타났다면 후방에서 눈에 안 보이게 지원만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만한 교육혁명으로 칭송받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지난 10여 년 간 목격했던 서구 선진사회에서도 교육을 이렇게 총체적인 틀로 바라보고 근본적 개혁을 이뤄내려고 대범하게 시도한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어를 읽고 쓰는 일은 세계를 읽음으로써 획득되는 것이다. 세계를 읽는 것은 단어를 읽는 것보다 앞서는 행위이다. 세계를 읽고 또 다시 읽는 비판적인 연습은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사람들에게 단어를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행위는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학습자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다.²⁾

세계적 교육실천가인 브라질의 파울로 프레이리 선생이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세계’가 무엇일까요? 인식 주체인 학습자의 가장 직접적이고 1차적인 외부 환경, 즉 마을이나 지역일 것이라 저는 해석합니다. 마을을 먼저 읽어내는 비판적 안목을 키우지 않고, 교육 콘텐츠만 죽어라 가르치는 맥락 없는 교육은 학습자들을 맥없이 키우는 바보짓이라고 그는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살아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이니깐요. 하지만 교육의 가장 힘들고도 중요한 과제는 그러한 생명체를 ‘존재하는 인간’으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생명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목적을 스스로 세워가도록 이끄는 일이지

2) 파울로 프레이리(2002), 교육문화연구회 옮김, 희망의 교육학, 아침이슬, p. 123. (번역투의 문장을 필자가 약간 다듬었음).



요. 저는 그 중요한 일을 학교와 마을이 손잡고 해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학교 혼자 말기에 버겁고, 그 과업을 온전히 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육이 처한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유일한 통로가 마을교육공동체에 숨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허술하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제가 가진 전망입니다. 이제 시대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옆을 바라보라’고 속삭입니다. ■

마을과 학교!
서울과 경기!

마을교육공동체로 서로 맞닿는다



발제 2

교육 공공성의 위기와 마을학교

유 창 복

서울시 협치자문관



교육 공공성의 위기와 마을학교

유 창 복

서울시 협치자문관

마을살이가 제법 번성하고 그 꼴을 갖춘 곳들은 대체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일이 마을살이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애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들 제대로 잘 키우기가 쉽지 않다. 있는 집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버렸고, 있는 집 애들이 인물도 좋고 게다가 성격도 좋다는 푸념은 그저 농으로 받아넘겨지지 않는다. 씁쓸하다. 맛별이가 불가피한 도시의 보통 시민들에게 어린 자녀의 보육은 가장 큰 일이다. 좀 커서 초등학교 보내놓으면 방과후가 또 문제다. 중학생이 되면 아이들은 본격적인 경쟁사회에 던져진다. 요즘 중고등 교실에서는 절반 이상이 엮어져있단다. 믿기지 않지만 현실이다.

한편, 아이들을 마을에서 함께 돌보는 일은 마을살이의 가장 자연스러운 시작이 되고, 마을 관계망의 튼실한 씨앗 역할을 한다. 내 아이 내가 알아서 키워야 하는 요즘, 아이를 함께 기르다 보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협동과 공유, 마을살이의 유전자가 슬슬 되살아난다. 그래서 아이 함께 키우기는 마을살이의 중심적인 내용이면서 마을하기¹⁾의 가장 효과적인 매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면서 꿈꾸게 된 마을학교를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삼아보려고 한다. 아직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빛을 내는 미미한 등불과도 같지만, 희망의 길을 내어 보고자 한다.

1. 공교육의 위기와 마을공공성

(1) 국가중심 교육과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1995.5.31.)

군부권력과 관료제가 주도한 우리사회의 근대화는 근대적 교육체제의 구축이라는 가장

1) 마을하기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마을살이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세계에 기초한 마을공공성을 확장하고, 마을공공성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경제적·문화적 토대를 만들어가는 의식적인 활동'을 말한다. 또한 민간이 주도하는 활동으로서, 정부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기초적인 과제를 수행한다. 국가가 교육과정과 교사양성, 교육서비스 전달체계를 장악하여 획일적인 톱다운(top down)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한다. 한 반에 70명이 넘는 아이들을 우겨넣고 그것도 2부제로 돌려댄 우악스런 교육체제였다. 이는 세월이 흘러 경제성장과 사회의 다원화가 현실화 될 즈음, 시대 흐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회지체의 현상이 되었다. 공교육의 비대화, 교육관료 비대화로 요약되는 국가중심적 교육체제는 혁신의 도마에 오른다.

1995년 5월 31일, 문민정부의 공교육 개혁안이 단행된다. 올해로 20년 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도 이른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라는 기초를 유지해온 5.31개혁안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공교육의 '시장화와 민영화'이다. 먼저, 공교육의 시장화는 교육행정의 운영원리를 시장의 원리로 대체함으로써 획일적인 국가중심적 교육체계를 흔들고, 시장에서 수요자가 우위를 점하도록,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는 교육수요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추어 교육서비스의 공급이 적응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주권의 민주화에 부응하는 조치로 이해된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하게도 교사를 교육서비스 제공자로 전락시키고, 사교육의 우위를 구조화시킴으로써 고질적인 사교육의 병폐를 고착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공교육의 민영화는 학교 설립의 주체를 민간으로 이양함으로써 교육공급자를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여 국가적 획일성을 다원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영화는 특수목적의 학교를 양산하고, '특수목적'은 이른바 학교서열을 부활시키고, 학교서열이 곧 진학서열과 취업서열로 직결되면서 학교 차별을 구조화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공급자를 민영화함으로써 교육의 다원성과 창의성을 높인다는 것이 교육개혁의 기본 취지였으나, 결과는 학교현장의 붕괴와 사교육의 비정상적 비대화, 학교서열의 부활과 고착화로 귀결된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은 물론 어떤 차별도 없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야 할 공교육의 책무성은 민간으로 회피되고, 그와 함께 교육의 공공성은 여지없이 붕괴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2) 공교육의 위기와 마을공공성

학교는 입신양명을 향한 부모들의 교육열 각축장이 되었다. 경쟁 체제로 구조화된 학교는 무한투쟁의 극한적인 경쟁이 작동하는 전쟁터가 되고, 친구를 이기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윤리가 되어 버린다. 교사는 교육서비스의 전달자로서 고득점의 기능 보유 여부로 평가받고, 향시 사교육의 '기술'에 비교당하는 열등한 교육서비스 집단으로 치부된다. 더욱이 학교 민영화는 학내의 경쟁문화가 사회적 경쟁구조로 확장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상위 서열의 특수학교에 진학해야 대학입시에 유리하고, 상위 서열 대학의 진학이 취업과 이후 사회적 성취를 좌우한다. 중고등 학교의 입학에서부터 이미 미



래의 사회적 성취의 수준과 실현 가능성이 정해진다.

경쟁이 가장 강력한 생존의 방법이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학교의 붕괴, 교육 공공성 붕괴, 공교육의 공공성 붕괴는 곧, 우리사회의 공동체적 가치의 기반이 붕괴 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교육의 공공성, 공교육의 공적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지금 기성세대들의 어린 시절, 한 반에 70명이 넘게 바글바글했지만 그래도 차별이 그리 노골적이지 않았고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희망이 살아있었으니 그 시절로 돌아갈 것인가? 획일성으로 거칠지만, 불평등을 누를 수 있었던 국가중심적 교육체제로 회귀할 것인가?

마을학교를 제안한다. 국가중심적 획일성이 작동하지 않고, 경쟁적인 시장 원리도 어색한,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장소인 마을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워보자. 마을학교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동시에 마을학교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해보자.

2. 마을학교란?

(1) 마을공동체 정책과 마을학교

마을학교라 말하면서 뜻하는 바는 실로 다양하다. 그래서 서로 똑같이 마을학교를 이야기하지만 서로 다른 관점과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마을학교의 실천이 아직은 얇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또한 다양한 마을학교의 시도와 실천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사례가 쌓여가는 중이므로, 마을학교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마을사업을 막 시작하려는 곳에서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기초적인 교양을 얻기 위해 기획한 마을살이 입문용 강좌학습 프로그램을 마을학교라 이름붙이기도 하고, 방과후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말하기도 한다. 둘 다 마을에서 벌어지는 교육활동이라는 점에서 마을학교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러한 마을학교의 사례는 지난 3년여에 걸친 서울시 마을정책을 통해 동네마다 주민들의 마을살이 활동이 활성화된 덕분이다. 시민참여 정책에서는 늘 그러하듯이 주민들의 교육프로그램은 사업초기 시민의 참여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구체적인 주민실행 사업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육아와 돌봄 및 교육 관련 주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씨앗기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영유아들의 공동육아와 초등 아이들의 방과후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다. 일반 주민들이 마을살이를 시작하는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동청소년들과 관련한 주민활동의 주체가, 아직은 시작으로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주체가 본격적인 마을학교로 진화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마을학교의 모델과 적절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아울러 마을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인근의 학교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점점(교사)을 찾고 함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일이 되었다.

(2) 마을학교의 교육적 원리

‘마을이 학교다’ 교육적 실천과 일상의 회복 2)

마을의 일상(장소와 사건)이 교육적 재료와 환경으로 재구성되고, 마을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에 참여한다. 아이들이 마을살이의 엄연한 주체로서 등장하고, 마을 사람들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한다. 마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상이 모두 학습의 소재이고, 마을 곳곳이 교실이다. 생태학습은 동네 뒷산에서, 경제학습은 마을 생협이나 크고 작은 마을기업을 통해서 한다. 마을축제에 참여하거나 아예 축제 기획을 맡기도 한다.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를 들고 영상 기록을 하면서 융합적 학습을 한다. 생협의 공동구매 물류 시스템을 조사하고 생산지 농장을 방문해 농업과 농촌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가늠해보고…… 이렇듯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모두 학습 소재가 된다.

또한 마을에서는 사범대나 교육대학을 나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교사가 되지 않는다. 동네 주민들이 가진 직업적인 전문성이나 취미로 갈고닦은 재주를 아이들과 나누며 교사가 될 수 있다. 은행에 다니는 현수 아빠가 경제를, 요가 전문가인 여해 엄마가 몸수업을, 화가인 상수 엄마가 미술을, 환경전문 시민단체의 활동가인 호영이 아빠가 생태환경을, 이렇게 한동네 사는 주민들이 각자 자신의 직업이건 취미이건 자신 있는 분야를 맡아 한 학기 강의를 감당하면 어떨까? 오히려 일반 교사들보다 훨씬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요즘처럼 아이들의 관심사가 구체적이고 다양한 시대에 이 방법이 아이들의 교육적 욕구를 더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마을이 다양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터라면, 바로 이곳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를 맞보고 미래를 꿈꾸는 교육의 터전이 되는 게 당연하다. 마을이 학교가 되고, 학교 안에 갇힌 학생이 아니라 학교 담을 넘어 마을을 누비며 공부하는 학생, 교사도 학교에서 상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마을의 주민이, 학부모가 교사가 되는 그런 마을을 꿈꿔보자. 마을학교, ‘도시 속 마을학교’다. 이렇게 아이들은 마을교육과정에 기초해 일상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탐색을 통해 지적 구성력을 훈련하고, 관계맺기의 다양한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생활의 주체로, 삶의 주인으로 성장·발달해간다.

2)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2014.12, 휴머니스트)에서 따옴.



마을학교란 마을이라는 일상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체험과 관찰 및 탐구활동을 통하여 지적, 정서적 발달을 성취하는 학습과 배움의 생태계를 뜻한다. 여기서 교육활동은,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감각체험을 기초로 하는 실천적인 교육활동이 중심이 된다. 또한 교사(주민)는 마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일상 사건들과, 마을의 여러 주민들을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환경으로 조직하고 배치함으로써, 아이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교사)들 역시 아이들과 직간접적인 교육적 관계를 경험하면서 학습하고 성장하게 된다.

마을교육과정

미취학 아이들을 위한 공동보육은 20여 년에 걸친 ‘공동육아’의 실험을 거쳐 이제는 보편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은 ‘품앗이 돌봄’을 실천하려는 주민 모임을 지원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어서 훨씬 수월해졌다. 이제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을 마을에서 감당하는 마을 단위의 교육 생태계 구축이 더욱 필요해졌다. 초등 아이들은 영유아들과는 달리 돌봄을 넘어 ‘성장과 발달’까지 챙겨야 하는 교육적 과제가 있다.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고 안정되게 돌보는(caring) 일이 절실하지만, 또래 아동기에 걸맞은 성장과 발달을 이끌어주는 교육적 대책 또한 요구된다. 그래서 마을학교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구별한다. 물론 아이들에 대한 돌봄도 절실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간 ‘교육적 과제’를 설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통상 아이들에 대한 대안적인 교육을 고민하는 경우, 아이들을 ‘그냥 자유롭게 놀게 내버려두라’고 한다. 지나치게 타율적이고 뻣뻣하게 계획된 공교육과 사교육의 압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잠시라도 숨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교육적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하지 않다. 공교육으로부터의 탈출이 교육적 ‘방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자유롭게 충분한 교육적 환경에서 적절한 교육적 자극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적절한 교육적 자극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 바로 교육과정이다.

지금 공교육체계는 ‘교육과정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은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갖추는 것이지 교육과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마을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을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아이들마다 요구되는 적절한 교육적 목표가 설정되고 또한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그 다음 더욱 진전된 교육적 과제가 설정되고 시도되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마을교육과정은 또한 어른(교사)들의 교육적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교육적 역할의 역할을 강화시키도록 촉진하는 지렛대가 된다. 즉 마을교육과정은 1) 일상을 교육적 맥락으로 파악·해석하고, 2) 아동청소년 개인이 일상의 사건 및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어떤 순

간에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개입하고, 3) 여기에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조직하여 배치하는, 그야말로 교사가 아이에게 종합적이면서도 개별맞춤형의 구체적인 작업(교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그러한 교사의 교수 역량을 날로 진화시키도록 강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마을과 학교의 관계

마을학교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결국에는 마을과 학교가 만날 것을 기대한다. 여기서 학교와 마을이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마을과 연계한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교와 마을이 1:1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마을생태계 속에서 본래의 위치를 찾고 역할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학교가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며, 마을이 학교를 초대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교에 마을살이가 자리잡고, 학교 교과에서 마을교육과정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마을의 중요한 기관이 되고, 교사는 마을의 중요한 주민, 바로 ‘유지’가 되는 것이다. 학교가 마을과는 독립적인 별개의 기관으로 ‘이미 있고’, 학교가 원하는 필요 (창의 체험학습 진행, 직업체험의 장 제공 등의 보충적 역할이나, 문제아동의 돌봄 등 특별한 문제 해결의 방안 등)에 의해 마을이 호명되고, 학교가 직면하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으로 마을에게 역할이 주어지는(마을이 동원되는) 식의 ‘연계’가 이루어지면 곤란하다.

…… 학교가 마을에 열리면 금상첨화다. 지금까지 학교는 지역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치외법권지대(?)와도 같은 곳이었다. 제 집 앞 골목조차 차들로 점령당한 형편에 그나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학교 운동장은 거의 접근 불가였다. 학교 선생님들은 대체로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이었다. 학교가 마을에 연결되면 좋겠다. 그리 오래지 않은 예전에 학교가 마을 놀이터이고 운동장이었다. 학교 운동회는 마을의 큰 잔치였다. 선생님은 마을의 어른이자 유지였다. 마을에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함께 결정해야 할 대소사가 있는 경우 항시 선생님이 초대되고 선생님의 의견이 존중되었다. 마을살이의 이 모저모가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으로 공유되고, 아이들이 마을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며 동네 어른을 만나 마을 내력을 배우면 좋겠다. 학교 선생님들도 마을에 나와 동네 주민들과 마을 일을 의논하고, 주민들이 학교 수업이나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과 학교가 이어지고, 학교가 그야말로 동네의 중심이 되면 좋겠다.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2014.12, 휴머니스트)에서 따옴.

학교 교육과정 중 상당부분은 이미 학교에서 해오던 대로 두고, 기존 정규교과의 규정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역에서부터 시도하여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학교방과후의 교육과정을 마을차원에서 운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규교과 수업에서 과목의 특성상 마을교육과정의 적용이 용이한 영역에서 시도해 보는 것이다. 창의체험 학습이나 중등 자유학기제 등이 유력한 영역일 것이다. 또한 마을축제나 학교마을 협동조합 등은 학교가 마을과 집중적이면서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



은 지식중심적인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체험과 관계중심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마을의 특정 장소들을 무대로 하여 벌어진다는 의미의 ‘장소성’이 있고, 마을주민들이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일상생활의 연장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협동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마을교육과정을 조직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3) 교육혁신의 선언

1960년대 복지국가의 퇴조와 신자유주의 약진은 1980년대를 경과하며 ‘경제적 양극화’와 ‘고용 없는 사회’를 글로벌한 현상으로 고착시켜 놓았다. 극단적 경쟁과 사회적 배제로 인하여, 대다수 약자에게 가해지는 고립과 단절은 그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 되었다. 여기에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개인화 현상이 결합되면서, 모두가 그냥 불안한 ‘존재적 불안’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형편이 좀 되는 사람들은 더 올라서지 못할까, 더 떨어질까 불안하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올라설 희망도 없이 일상이 그저 절망이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삶이 버겁고 외롭다. 그렇다고 누구와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롭다’했던가?

이제는 ‘공존(共存)’이 희망의 키워드다. 공존은 ‘공감(共感)’이 있어야 가능하며, ‘공유(共有)’의 기반이 있어야 유지된다. 공감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전제로 한다. 각자 형편과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각자에게 시급하고 절실한 필요와 요구가 다르다. 이를 공동의 필요와 요구로 합의하고, 합의를 협동적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의 협동은 함께 협동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경험과 기억을 서로 공유하게 하고, ‘공공성’이라는 함께 신뢰하는 가치를 공유하게 하면서, 비로소 ‘함께’라는 의미를 ‘마음’ 속에 자리 잡게 한다. 이래야 자신의 존재적 토대를 가지게 되며, 일상에서 함께하는 관계를 실감하게 되고, 비로소 지속가능한 관계임을 알고 존재의 불안을 떨쳐낼 수 있다.

아이들이 마을의 곳곳에서 마을사람들과 부딪치는 일상적인 관계로부터, 다양한 도전과 난관을 경험하고 이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궁리하고 결행하며 새로운 관계를 성취하는 과정을, 교육적으로 조직된 환경 속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은 존재적 토대를 쌓아가며 안전하고 안정된 학습과 성장의 관계를 획득하고, 성장과 발달의 감각(느낌)을 몸에 새기는 것이다. 이 감각(느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의 근원이고 무엇인가에 대한 성취의 동기이며, 못 사람과의 관계에서 능동적 주체로 나서게 하는 추진력이 될 것이다.

미리 정해진 지식체계를 주어진 시간 내에 소정의 기준까지 숙지하고 숙달하고, 시험이라는 미리 정해진 상황 속에서 충실히 재현해 내도록 요구받는 지금의 학교 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일 수 없다. 더욱이 일렬로 순위를 매기는 경쟁적인 평가제도로 학업성취

도를 평가하고, 학업성취도가 바로 사회적 성취까지도 좌우해 버리는, 한 치의 여유도 용납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쟁의 전쟁터에 내몰려 있다. 이는 교육적이기는 커녕 오히려 반교육적이며, 교육의 이름으로 반교육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학교는 아이들의 교육적 성장과 발달이라는 교육 본연의 과제를 마을을 기초로 해서 실현해보자는 교육혁신의 선언이다.

이는 막연한 희망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아무리 공부해도 더 이상 사회적 성취가 보장되지 않고, 초등부터 중고등까지 12년, 대학과 대학원을 거쳐 오로지 공부와 스펙쌓기에 전념해도 취업은 저 멀리에 있다. 지금의 경쟁적 교육시스템은 이미 밑바닥에서부터 새고 있는 셈이다. 한편 자생적으로 꼬물꼬물 시도된 마을살이와 협동조합 등 새로운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가시화되고 대중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시도하고 익히는 과정이며, 경쟁이 아닌 상생의 관계를 확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것도 구호와 담론의 수준이 아니라 생활세계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이 직접 몸으로 만들어가는 시도들이다. 이러한 새로운 혁신적인 흐름 속에서 마을학교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마을학교는 일상의 삶과 배움을 일치하는 주체의 발달과 성장 중심의 삶의 학교로서 성인들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학습과정으로 여겨지고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마을학교는 교육의 혁신을 제안하는 것이다.

3. 마을학교의 추진 방법

마을학교는 어른들의 희망의 언어로 짜여진 마스터플랜으로는 결코 달성되지 않는다. 마을학교는 아이들의 작은 경험과 성취 속에서 교육적 성장이 일어나고, 그것이 보람이 되어 새로운 실천과 도전의 동기가 될 때, 비로소 추진력이 생긴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 아이들이 (피교육자가 아니라) 교육적 주체로 등장해야 한다. 아이들이 마을에서 교육적 주체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주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다. 즉, 마을학교는 아이들의 ‘주민되기’로부터 시작되며, 마을살이의 주체가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우리는 아이들이 주민되기로부터 마을살이의 주체가 되도록 의도적으로 기획하는 활동을 통하여 마을학교를 만들려고 한다. 즉, 마을학교는 아이들이 마을하기를 실행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적 성장과 발달을 경험하고, 동시에 그러한 교육적 환경과 교육과정을 구축하면서 만들어진다.

(1) 아이들의 마을살이, 마을하기?

아이들이 마을의 엄연한 주체임을 스스로 실감하고, 마을의 여러 주민들 역시 아이들이



마을의 구성원임을 확인함으로써, 아이들의 '주민되기'는 시작된다. 주민되기는 주민으로서의 공감과 존재감을 획득함으로써 달성된다. 따라서 주민되기는 마을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이다. 주민되기의 다음 단계는 '역할하기'이다. 단지 학교와 학원에 있어야 하는 모든 아이들 중의 하나인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순간 마을의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짓)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존재감을 가지는 것이다. 마을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경청하고 응시하고 기대하고 말 걸고 요청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아이들의 주민되기를 이끄는 손쉬운 예로 마을보물찾기를 들 수 있다. 아이들은 마을 곳곳의 여러 장소(낯선 길거리와 후미진 골목, 경로당과 동사무소, 마을도서관과 어린이집 등등)들을 직접 눈으로 발로 살펴보고, 마을에 사는 다양한 주민들을 마주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알아보고, 나아가 동네의 역사를 캐보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터전으로서의 마을을 실감하게 하고 자신의 존재와 자기를 둘러싼 관계를 새롭게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아이들이 의자만들기 목공수업을 통하여 마을하기를 하는 사례를 들어보자.

우선 이 의자에 누가 앉을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왜 의자를 필요로 하는지 알기 위해 의자를 주문한 사람을 방문한다. 나이 많이 드시고 거동이 불편한 동네 할머니가 집 앞에 나와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나뭇거리를 다듬는 등 소일할 때 필요한 것이란다. 할머니의 체구를 눈에 익히고 의자를 놓고 앉을 장소를 살핀다. 그 다음 교사의 안내에 따라 폐목재를 구하기 위해 동네를 누비고 버려진 가구를 발견해서 미리 디자인한 목재 치수대로 재단하고 조립해서 제작한다. 제작이 완료될 즈음에는 얼른 할머니에게 전해 주고 싶어 안달이 나지만 참는다. 마침내 완성, 얼른 달려가 할머니에게 앉아보라고 보낸다. 무뚝뚝하기만 한 줄 알았던 그 할머니 너무 고마워하시며 안에 들어가 먹을거리를 챙겨 내놓으시고는 아이들에게 먹으라 하신다. 아이들은 가끔 할머니집 앞에 들러 할머니가 의자를 잘 사용하시는지 보곤 한다. 어느덧 할머니와 친해지면서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된다. 보살피는 가족도 없고 이가 시원치 않아 제대로 음식을 드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반찬을 챙겨드리다가, 교사의 제안으로 할머니 생신상을 차려드리기로 한다. 물론 직접 아이들이 요리를 해서 상차림을 하는 것이다. 목공수업은 요리 프로젝트로 옮겨간다.

목공수업을 통하여 우리는 목재의 특성을 익히고, 기하학적 기획 능력과 공구다루기 등의 종합적인 학습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사례에서는 여기에 마을살이가 결합된다. 동네 할머니의 일상과 형편, 그리고 내력을 알게 되고,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돕기 위한 활동으로 넘어간다. 목공수업은 요리수업으로 전환된다. 의자를 만드는 것만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다. 의자 만들기를 통하여 할머니와의 관계를 경험하고, 할머니의 인생을 경험하고, 할머니를 돕기 위한 활동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교사는 목공의 물리적, 기계적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할머니 등장시키기, 폐목재 구하기, 요리 프로젝트 권하기 등의 결정적인 교육적 개입을 한다.

(2) 주민들의 교사되기

아이들의 마을살이 과정 속에서 마을의 주민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강사 또는 보조 교강사 등의 직접적인 교수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아이들의 마을살이 활동에 연루되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조언을 하거나 또는 물건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판매활동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파는 물건을 사는 소비자 역할 등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개입하게 된다. 아이들의 마을살이는 'real world'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이므로, 마을의 주민들 역시 실제 상황 속에서 마땅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실제의 상황은 교육적 상황으로 활용되므로 어느 정도 기획되고 준비되어 벌어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즉 교육적으로 계획된 연극적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민의 생활과 삶 자체가, 즉 주민의 다양한 삶의 경험과 기술, 지혜가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교육적 자원이다. 그냥 툭 던진 한마디의 질문이나 한순간의 표정이 아이에게는 결정적인 교육적 도전의 과제를 안겨주기도 한다. 동시에 주민들은 아이들과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교육적 의미를 알아차리게 되고, 때론 세심하게 교육적 의미를 성찰하고 때론 적극적으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더욱이 동네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교육적 경험은 자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거리두기'의 감각을 일깨워준다.

(3) 교사-학교의 마을하기

학교의 교사가 아이들과 마을하기를 한다는 것은 정규 수업 또는 동아리활동 등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마을살이를 교육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마을의 여러 장소와 역사, 환경 등을 교육적으로 해석해내고, 마을 주민들의 일상과 주민들과의 관계를 교육적 환경과 자원으로 파악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가 바라고 원하는 수준의 교육적 준비를 갖춘 마을은 별로 없다. 오히려 교사가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적으로 재조직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의 마을은 초고속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이미 파괴가 완료되었다. 마을을 다시 복원하려는 시도 역시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마을살이가 제법 번성한 곳이 있다 해도 아직은 미미할뿐더러,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바로 실망하게 된다. 교육적으로 별 효과적인 자원을 기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마을과 연계하는 학교는 피곤한 일이 된다.

그래서 교사와 학교가 마을학교, 마을 연계형 학교를 만드는 일은 교사와 학교가 마을을 교육적 터전으로 재구성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교와 교사가 지역사회를 마을공동체로 복원하는 마을하기에 적극 나서야 비로소 교사와 학교에게



마을이 의미 있게 다가서게 된다. 학교와 교사가 마을을 교육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학교의 존재감이 마을에 생긴다. 그래야 마을에서 학교의 위치와 역할이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것을 넘어 ‘마을 속 학교’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4. 맺음말

서울시와 마을지원센터는 마을학교 사업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마을학교의 모델을 만드는 사업과 마을학교의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씨앗기 지원사업으로 두 가지의 경로를 별도로 설계하여 진행한다. 전자는 마을교육과정의 개발, 마을학교를 직접적으로 운영해 나갈 교강사 양성, 다양한 교육관련 주체들의 (민민 및 민관)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교육적 담론의 형성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이후 일반적인 확산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모델사업은 비교적 마을학교의 주체가 있고, 마을학교의 환경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곳을 택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후자의 사업은 아직 본격적인 마을학교로 나아갈 정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마음은 있지만 엄두가 나지 않은 마을과 학교(교사)들이 가볍게 형편에 맞게 살금살금 시도해 보는 것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을살이에 재미 붙이면서 친해진 엄마들이 모여 학습하며 마을학교를 꿈꾸거나, 자그마한 프로그램을 조심스레 시도해보려 할 때 지원한다. 한편 교사들 역시 마을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모임을 해보거나 실험적인 수업이나 활동을 실행해보려 할 때 지원한다. 그래서 일정한 경험과 자신감이 들 때, 본격적인 마을학교로 진입하기까지를 지원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이다.

마을과 학교!
서울과 경기!

마을교육공동체로 서로 뭉친다



토론 1

‘교육 공공성의 위기와 마을학교’에 대한 몇 가지 의견

홍 인 기

상탄초등학교 교사, 영주산마을공동체



‘교육 공공성의 위기와 마을학교’에 대한 몇 가지 의견

홍 인 기

상탄초등학교 교사, 영주산마을공동체

1. 공동체는 연애다

공동체와 연애의 공통점이 있다. 첫번째 공통점은 연애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듯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각자 다르다. 연애를 할 때 머릿속에 각기 다른 사랑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두사람이 만나기에 연애과정에서 서로 싸우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이 옳다고 우기기도 한다. 두사람이 사랑에 관한 생각의 차이를 잘 극복하면 합의점에 이르러 결혼에 이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헤어지게 된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체에 관한 머릿속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만들지만 그 생각의 차이로 인해 무던히도 싸운다. 그래서 그 생각의 차이를 잘 극복하면 공동체가 유지되지만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서로 헤어지게 된다.

연애과 공동체의 두 번째 공통점은 깨어진 연애와 공동체도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흔히들 연애의 목적을 결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결혼에 이르지 못한 모든 연애는 모두 실패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모든 연애는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 좋은 연애는 비록 결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성장을 가져온다. 그리고 풍성한 삶의 다양한 면을 경험하게 된다. 공동체 역시 만나기도 하지만 헤어지기도 한다. 처음 사랑에 빠진 사람들처럼 공동체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다양한 유익과 풍성함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맛보게 된다. 함께 여행을 다니고 책을 읽고 아이들을 키우고 음식을 나누어 먹다가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함께 집을 짓거나 같은 동네로 이사를 오기도 한다. 하지만 공동체도 사람의 일이라 만나면 헤어지기도 한다. 시간이 흐르면 상대방의 인간적 모순이 보이기도 하고 자녀들이 서로 불화를 일으키면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헤어지게 된다. 그렇게 헤어졌다고 실패한 공동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동체를 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이미 이전과 다른 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애를 안하고 살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한다. 연애가 삶의 목표는 아니듯이 공동체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헤어질 때 다시는 공동체를 안 할 것 같은 사람들도 또다른 공동체를 찾게 된다. 이전 보다 좀 더 느슨한 공동체를 찾기도 하

지만 공동체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매력을 잊을 수 없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또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을 좀 더 분명히 알아가고 성장하게 된다. 잘 만났다면 잘 헤어지는 과정도 필요하다. 공동체를 시작하려는 분들 혹은 지금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참고했으면 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

누가 나에게 ‘마을교육공동체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나는 서슴없이 ‘엄마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하고 답할 것이다. 나의 경험 때문이다. 10여년전 아내가 둘째를 낳고 키우면서 아는 엄마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아이들에게 장구를 가르치고 책모임을 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이든혜움’공동체가 시작되었다. 학교 교사이면서 퇴근후에서는 ‘좋은교사운동’ 활동으로 바쁘던 나에게 ‘이든혜움’공동체는 처음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기에 적극 모임을 후원했다. 2008년 부터는 7가정이 고양시 영주산 주변 마을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다. 함께 공동체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품앗이 공동육아인 ‘새콤달콤’도 운영하고 마을사람들과 함께 ‘영주산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 함께 하기도 했다. 지금은 대안학교인 ‘산아래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첫아이의 공동육아를 ‘야호’어린이집에서 시작하면서 교육의 주체인 부모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공동체를 하면서 풍성한 삶을 맛보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했다. 자식이 많은 집을 빗대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지만 공동체의 삶이야 말로 ‘바람 잘 날’ 없었다.

최근 ‘영주산 마을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그만 두고 ‘영주산 마을공동체’라는 임의 단체로 전환했다. 협동조합을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반면 협동조합을 통해 얻는 이익은 작았기 때문이다. 임의 단체로도 지금까지 마을에서 해왔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많은 사업을 했다. 커피숍도 운영하고 아나바다 장터도 운영했지만 고정적인 인력자원이 필요한 사업은 상근인력이 없는 마을에서는 모두 사업을 접어야 했다. 지금까지 가장 잘 유지되고 있는 사업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과후 사업과 엄마들의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는 약기 배우는 활동이나 운동모임이다.

역사적으로도 공동체는 약자의 언어이다. 주류사회는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다. 주류사회는 약자들을 지배하면서 편히 살 수 있다. 공동체는 약자가 혼자 살아남지 못하기에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가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우리시대에는 엄마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엄마들의 필요인 아이들의 육아나 교육, 자기개발이 마을사업에서 지속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다. 수많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뿌리에는 공동육아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이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3. '변방에서 장수 만들기' 프로젝트

청어람아카데미에 양희송 선생님은 '변방에서 장수난다'라는 말을 무척 좋아한다고 한다. 시대를 바꿀 영웅은 주류사회속에서 길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주류로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다양한 시도와 가능성을 어떻게 육성하고 장려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성적경쟁 중심의 학교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학교가 출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새로운 대안 교육세력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을 생각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만들어보자. 대학진학을 고민하지 않고 고등학교 교육에 충실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모아 학교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기숙학교도 좋다. 정부가 이런 학교에 대규모 지원을 하면 어떨까? 교사 공동체와 협약을 맺어 운영을 위임하는 차터 스쿨(학생수 감소로 발생하는 초등유휴교실 이용)도 만들 수 있다. 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동육아 공립, 시립 유치원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험들의 기대효과는 성적경쟁중심의 학교문화를 극복하는 대안세력의 확대를 통해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성적경쟁중심의 학교문화를 완화시키는 견제장치가 될 것이다.

물론 한계점도 있다. 이러한 대안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다. 다만 현재는 대안교육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장벽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대안 교육 세력이 성공한 다양한 요소가 제도적 장치를 벗어난 자율성인데 공교육의 특성상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까 걱정이다. 새롭게 시도하는 학교들을 관리하는 주체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육적 실험을 위해서 다음 정권에서는 대통령 직속 '교육실험위원회' 신설을 제안한다. 기존의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경우 국가 수준의 교육문제를 다루다 보니 저항도 많고 제대로 된 정책을 이끌기 어렵다. 지금의 교육문제는 매우 풀기 어렵고 국가단위에서 실시하기 이전에 충분한 증거를 획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실험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만들어 법이나 기존의 제도 한계에 갇혀 공교육이 움짱 달짝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실험을 해본다. 다양한 실험을 시도교육청과 실험후 성공한 사례에 대해 법령정비를 통해 원하는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법제정을 통해 다양한 교육실험이 가능하도록 한다.(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실험위원회가 기존의 법령적 한계를 벗어나 실험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제도 한계에 갇혀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교육실험이 이루어지고 증거기반의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과 학교!
서울과 경기!

마을교육공동체로 서로 뭉친다



토론 2

‘자의적 시각’과 ‘허술한 전망’에
대한 몇 가지 의견

김 영 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자의적 시각’과 ‘허술한 전망’에 대한 몇 가지 의견

김 영 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좋은 글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병곤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유행처럼 말해지는 마을에 대해, 마을교육에 대해,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는데 이는 그간의 고민과 현장 관찰의 깊이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운동과 행정의 경계선이 불분명해지고 행정이 더 진보적인 당황스러운 상황조차 발생하는 복잡미묘한 사회적 조건들과의 관계 속에 마을 논의의 사회적 좌표가 놓여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어야 할, 확인해야 할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 왜 마을과 연계해야 하는가?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 우리는 마을이 파괴되어가는, 아니 마을을 파괴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긴 시대를 지나왔다. 40대 이하는 마을에 대한 정서적 이해와 경험이 없는 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을은 정서적 따뜻함은 있을지 몰라도 뭔가 경쟁에서 뒤쳐진 낡은 옛 사진 속의 그때 그 시절 같은 느낌으로 남아있었다. 그런 마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본격화 된 것은 아무리 길게 봐도 10년이 안되었다. 왜 마을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불러 나오게 된 것일까?

마을교육공동체를 바라보는 한 연구자의 자의적 시각과 허술한 전망에 충분히 동의한다. 특별히 마을교육공동체를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하겠다. 그런데 공교육이 마을과 연계를 맺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왜 학교는 마을과 연계해야 하는 것일까? 그동안 철저한 사회적 분업 속에서 마을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현장들과의 단절 속에서 학교만의 공간에서 학교만의 방법과 내용으로 교육을 해왔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기에 마을과 연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 이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특징으로 제시된 세 가지 내용에 그 답이 있는 듯하다. 교육의 본령을 회복한다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 중 세 번째인 ‘무작정 위로 내닫지 않고 차분히 옆을 바라보겠다는 교육철학’, ‘마을과 교육이 연계, 즉 네트워크를 이뤄 공동체 만들어가

야 한다'는 주장이 마을적 가치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위만 바라보지 않고 옆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는 교육, 그래서 비로서 만나게 되는 것들과 관계 맺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혁신의 필요가 마을 연계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문제는 마을 연계의 필요성이 당위적 가치가 아닌 학교현장의 현실적 필요라는 당사자성이 발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진보 교육감 시대, 행정이 열어 놓은 가능성의 공간이 갖는 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몇몇 개별적 실천 사례라는 깃발을 세우고 깃발을 전망삼아 또 다른 개별적 실천으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는 방식이 아닌, 행정이 집단적 논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실천을 지원하는 협력자로서 역할을 할 때 현장이 자기 필요의 지점을 어떻게 성찰하고 협력적 실천 방안을 마련해 가는지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 학교 협력의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립된 실천 속에 앞과 옆, 뒤를 두루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없었던 학교 현장에,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의 고민이 주어짐과 동시에 비로서 오래된 과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그래서 그간 있었던 다양한 시도와 실천은 깃발이 아닌 토대가 되어 마을교육공동체 논의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누가 마을이고 무엇이 마을인가?

서울과 경기 공히 마을 운동은 선구자적 역할을 한 소수 활동가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대중적 논의와 실천의 장이 마련된 것은 행정력과의 결합을 통해서였다. 민 주도성은 가치있는 것이고 관 주도성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이분법은 이미 흘러간 옛 노래라고 할 수 있다. 때로 관과 행정이 민보다 진보적인 상황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관과 행정이 일하는 방식의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박정희 시절 시도되었던 '새마을 운동'과 차별화되지 못하는 '마을 운동'의 화석화는 볼을 보듯 뻔하다. 오히려 '새마을'보다 못한 '그냥 마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누가 마을이고 무엇이 마을인가?

마을 운동 초기에 말해지던 마을은 이미 현재 마을 운동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담아내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만 해도 '인성교육', '자유학기제', '문예체 교육활성화' '혁신교육지구', '평생교육', '인생이모작'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정책에 '마을'과의 협력적 교육활동은 기본적인 접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 역시 '서울평생학습진흥원',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많은 단위에서 '마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 마을은 통제가 불가능한 다양하고 변형된 자기 복제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를 말하게 되면 또다시 근본적인 출발점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누가 마을이고 무엇이 마을인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마을이 학교 밖에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는 마을적 가치가 학교교육활동의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마을’로 변화되어야 한다. 교사-교사간 관계, 학생-교사간 관계, 학교운영의 원칙 등에서 마을적 가치가 기준과 원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 교육활동이 곧 또 다른 형태의 마을활동이 될 수 있을 때 학교와 마을의 연계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학생은 마을 주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 역시 근무하는 학교의 학교마을 주민으로서 학교 밖 마을과의 관계성을 갖는 제한적 주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장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누가 마을이고 무엇이 마을인가?

3. 어떻게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나?

학문언어가 아닌 생활언어로 전달했지만 선의가 지닌 사람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갈등 조정과 고난의 견뎌이라는 실천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일구어 왔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의 간다. 그러나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초기 단계의 운동적 실천이 행정과 만나 대중적 확산으로 전환되는 지점에서의 성공적 방법에 대한 고민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행정이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민과 만나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의 역동성과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중적 확산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해내기 위한 자기 역할의 좌표를 어떻게 잡아내야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방법화 할 수 없는 방법론: 숙성의 시간을 견뎌내라’는 제언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하겠다. 성공하는 운동을 돕는 수단으로서의 행정에 대한 시각에서 벗어나 운동의 동반자로서 행정의 성공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거버넌스, 협치가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4. 마을은 무엇이 다를까?

학생, 학부모, 교사는 교육의 3주체라고 하지만 각각의 자기 영역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 관계 맺기를 하고 있다. 존재 조건의 차이가 분명하고 학교교육에서는 협력적 활동 정도를 기대한다. 그런데 마을을 만나면서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 조건으로 변환된다. 학생, 학부모, 교사는 마을 주민이라는 정체성에서는 존재 조건의 동일성을 갖게 된다. 마을 주민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침에 직장으로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마을을 비우는 어른들에 비해 학교와 학교 밖 동네를 휘저으며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 삶의 동선은 철저히 마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어른들이 비운 마을을 학생청소년 주민들이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에서 생업을 잇고 있는 주민과의 관계성은 오히려 어린 주민들이 돈독하다.

마을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런 것이다. 그동안 학교는 교육은 늘 학생들을 위한 또는 학생들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 이야기를 해왔다. 교사와 학부모로 이야기될 수 있는 어른들의 변화는 거론되지 않았다. 그런데 마을살이에 대한 출발은 어른들의

몹이었다. 서툰 마을살이를 함께 해 나가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졌는지를 어른 마을주민들은 신앙고백 하듯이 이야기해왔다. 어른들 자신들의 변화가 마을살이를 통해 얻은 최고의 수확이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또다른 가능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른들이 변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일부가 아닌 주민 모두의 변화를 기본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형태의 교육운동보다도 전면적이고 흥미롭다. 그래서 이병곤 선생님은 ‘오늘날 한국 교육이 처한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유일한 통로가 마을교육공동체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동감이다. 그런데 걱정이다.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어떤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일까? 마을로 인해.....쩍

마을과 학교!
서울과 경기!

마을교육공동체로 서로 뭉친다



읽기자료 1

마을교육공동체를 말한다

이 병 곤

경기도교육연구원 전문연구원



마을교육공동체를 말한다

교육혁신의 동향, 학습 경험, 그리고 마을

이병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전문연구원
jazznut.lee@gmail.com

I. 세계 교육개혁의 양상



서로의 손 그려주기 (에서)

정보 & 교류
활성화 →
개별 국가
교육개혁 보
편성 →
개별 국가
성과 각국
공유

II. 세계 교육개혁의 흐름

GERM (Global Education Reform Movement)

1. 교수-학습의 표준화
2. 문해력 & 수리력 성취도
향상에 집중
3. 정한 목표 따르는 교수법

II. 세계 교육개혁의 흐름

GERM (Global Education Reform Movement)

4. 책무성 강조 (시험 성적)
5. 관료주의적 통제 증대
6. 교사 성과급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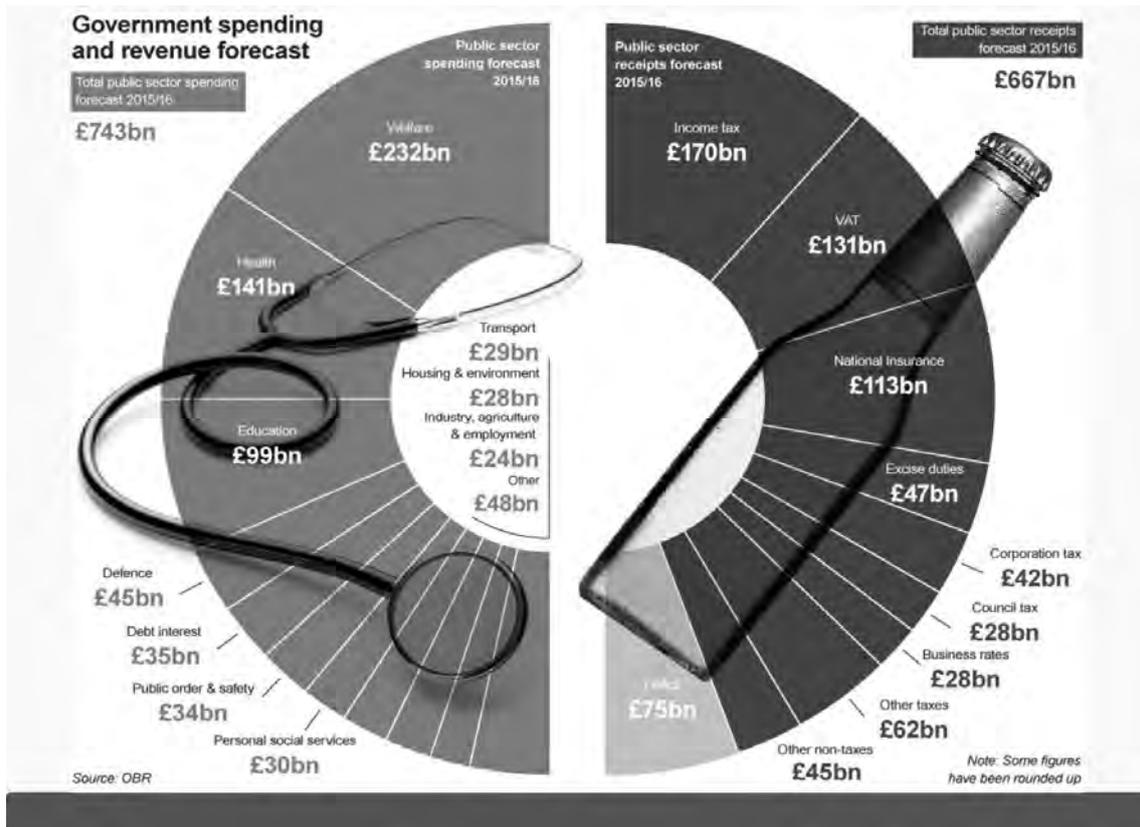


- “비밀의 정원은 없다” - 매년 학생 표준 성취도 검사 실시 & 공표
- 전국 모든 학교의 장학감사 보고서와 학교 등급 비교 가능
- 교육기준청 홈페이지 (<http://reports.ofsted.gov.uk>)

II. 세계 교육개혁의 흐름

GERM (Global Education Reform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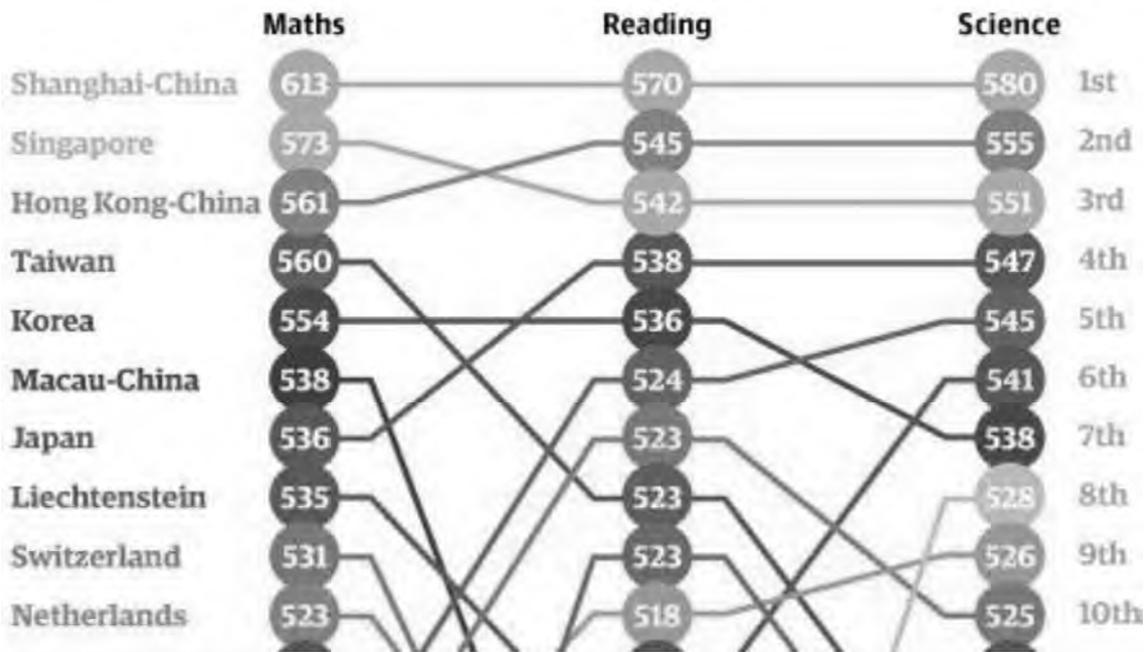
- ▶ 주요 선진국 개혁 방향:
한국이 벗어나려는 길
- ▶ 도대체 왜?



II. 세계 교육개혁의 흐름

GERM (Global Education Reform Movement)

- ▶ 세계화, 시장경쟁 체제, 교육력 약화 → 경쟁력 저하 초래할까 불안
- ▶ 과연 성공했을까?



- 2013년 PISA 종합순위
- 핀란드 12위, 독일 16위, 덴마크 22위, 영국 26위, 미국 36위
- 막대한 교육비 사용에 대한 책무성 - 선진국 정부의 곤혹스러움

III. 반성과 대안 - 제4의길

(Andy Hargreaves & Dennis Shirley)

1. 영감과 통합 이끄는 비전: 도덕적 목표
2. 교사 위상 제고
3. 시민의 적극 참여

III. 반성과 대안 - 제4의길

(Andy Hargreaves & Dennis Shirley)

- 4. 학생, 변화의 파트너
- 5. 사려 깊은 교수-학습
- 6. 문해력, 수리력 중심
탈피: 다양한 교과
- 7. 교부담 일제고사 폐지

IV. 한 가지 실현 방안





V. 교육혁신의 몇 가지 단서

[출처: Fiona Carnle, Alternative Approaches to Education, 2003, 제10장]

1. **긍정적 관계 (positive relationships)**
개방, 신뢰, 개인의 가치 인정-멘토,
동료중재, 예술가와의 활동, 특별방
2. **학습: 총체적 접근(Hollistic Approach)**
시간표 없애기, 모둠 프로젝트

V. 교육혁신의 몇 가지 단서

3. 민주적 참여 (Democratic Participation)

- 학생들이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
- 시간표, 예산 편성, 식당 계약
- 교사들의 학습 내용, 평가방법, 교수의 질에 대해 토론 [Student as Researchers]
- 집기 구입, 교사채용, 행동 내규 제정

V. 교육혁신의 몇 가지 단서

4. 학부모와 지역사회 협력

- 지역 단체와 협력, 놀이공원 디자인
- 영·유아기 아이들을 위한 교육 평등
Barbington C. Tech. College => SureStart
- 청년아트축제: 빅토리아 시대 재현
(Infracombe College @ Devon)
- 도심 어려운 지역: 학부모 학습 문화
제고: 강의실, 놀이방 (Little London Com. P. Sch.)

V. 교육혁신의 몇 가지 단서

5. 생태교육(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통합교육과정: 허브 가든 운영. 텃밭.
- 환경주간, 교사 연수, 환경협의체 구성
(Ansford Com Sch @ Somerset)
- 화목 난로, 풍력 발전기, 정크 푸드 제한
- 자전거 네트워크와 연계 (Sustrans)



V. 교육혁신의 몇 가지 단서

6. 작은 학교(Smaller Structure)

- 작은학교연합: 작은 단위로 쪼갬. 작은 단위에 교장 배치. 운동장, 수영장 시설 함께 사용
[Stantonbury Com. @ M. Keynes]
- 학교 쪼개기(Seaford Head Com. College)
- 7개 학년 14,000명: 200명의 Learning Community로 나누고, LC를 다시 3개의 소그룹(Learning Group)으로 나눔. LG에는 7~9학년이 모두 섞임.
- LC를 동일한 교사 팀이 지속적으로 지도

VI. 마을, 또 다른 대안



VII. 마을교육공동체란?

**“교육을 통해 마을이 함께
꿈을 꾸면서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 학교나 교육을 중
심으로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 [80~84]

VII. 마을교육공동체란?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고,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
되는 것”** [80~84]



VII. 마을교육공동체란?

**“아이들이
-마을을 통해서
-마을에 관해서
-마을을 위해서
학습하는 것”** [139]

**“아
그
하**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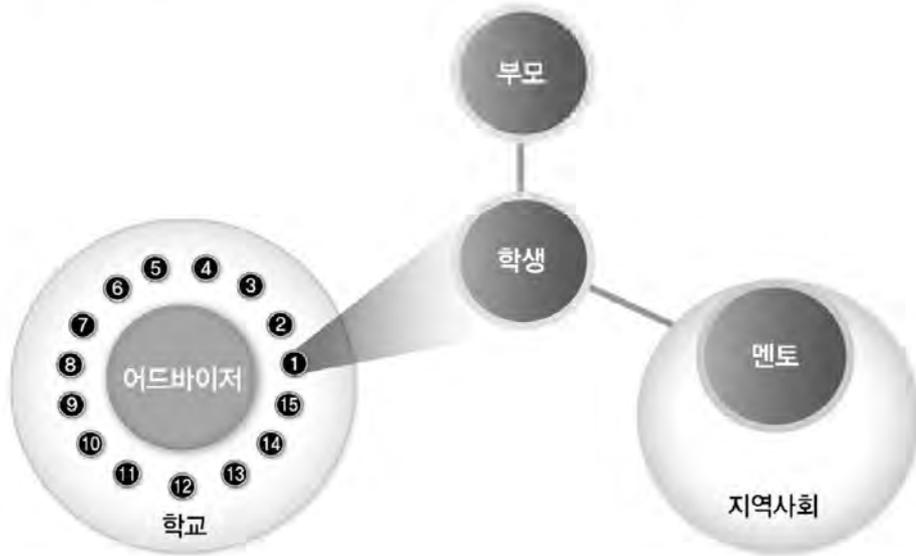
VIII. 메트스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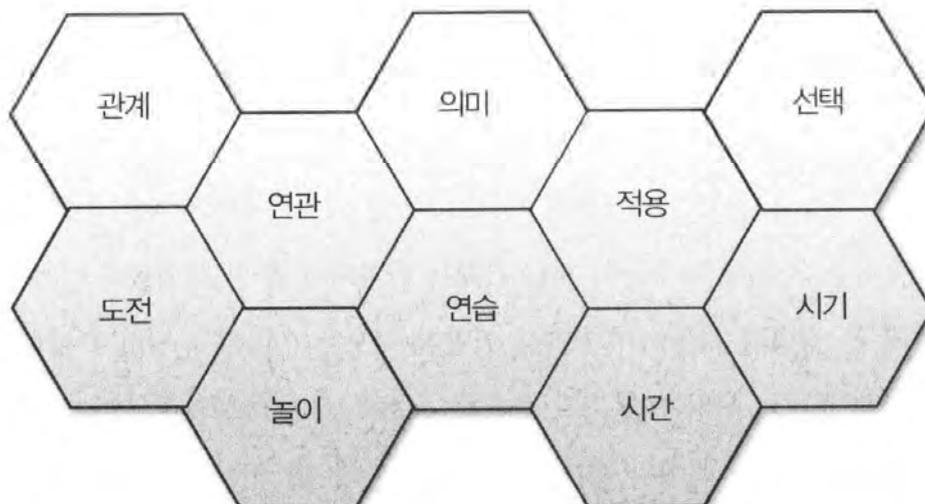
마을과 학교! 서울과 경기! 마을교육공동체로 서로 물들다



VIII. 메트스쿨 [운영 방식]



VIII. 메트스쿨(핵심 교육관)



VIII. 학습의 다양한 형식

학교 주재 전문가	탐방	방과후 프로그램	지역사회 활동 참여
인턴십/ 도제제도	대학 강좌 연계학습	일(work)	독립적 연구
여행	전환기 휴식	창업	온라인 학습

VIII. 빛나는 사례 - 허버①



- **오클랜드 BPL: 공간, 동네 관심**
- **1차 인턴십: 시장 선거 캠프 → 투표 행동 & 주택 소유 여부 주목**
- **졸업PJ: 주택 구매 세미나 조직**
- **2차 인턴십 @ 부동산 사무소, 저소득층 주택 공급 PJ 공부**
- **부동산기업, 시민단체, 은행, 시청, 주 정부 기구, 교사 초청 (25명 참석)**
- **UC 버클리 장학생 입학**



VIII. 빛나는 사례 - 허버②



“UC 버클리에서 정치학을 공부할 겁니다. 4년 후 우리 지역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자원, 배경, 더 나은 감각을 갖춰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자라난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향후 4년, 더 나아가 제 생애에 걸쳐 추구하려는 여러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IV. 영국 BBBC와 사회적 기업

- ▶ 앤드류 모슨 (감리교회 목사)
- ▶ 1984년 동부 런던 ‘브롬리 바이 바우’ 부임
- ▶ 마을 주민들과 접촉
- ▶ 교회 예배당에 유치원, 공방 등 조성

IV. 영국 BBBC와 사회적 기업

- ▶ 1988년 종합 건강지원센터 설립
- ▶ 정부 보조금 & 절망 속에 살던 지역 재생
- ▶ 수십 가지 사회적 기업 창립
- ▶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시스템 구축





V. 학습 경험 달리 보기



오덕, 십덕, 덕력, 덕질, 입덕, 휴덕, 탈덕, 덕심



위와 같은 네 가지 연필 스케치만 다짐, 무한복은 서로의 경험에 의탁해 온 후로, 두는 (혹시, 다들)서로 믿고 있는 걸까?

“연탄절
이벤트의
감동.”

덕후들이
창조한
서사의
공유”



V. 학습 경험 달리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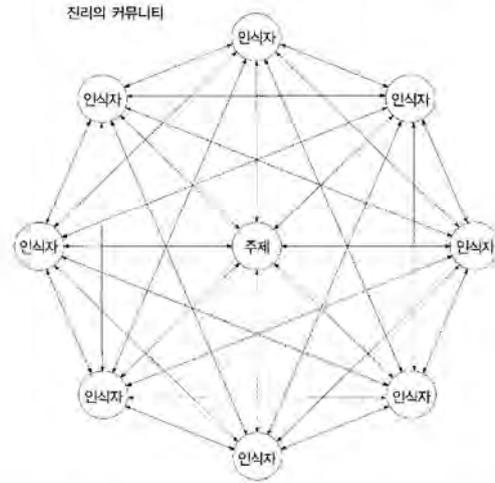
경험의
재구성,

An
Experience

존 듀이
(1859~1952)



IV. 학습 경험 달리 보기



순량의 샘플 데이터 → 순화, 상호작용, 역동







Karl Marx, Oscar Wilde, Mahatma Gandhi, Rudyard Kipling, George Orwell, Bernard Shaw, Mark Twain, Norbert Elias, Virginia Woolf, Edward Jenner, Michael Faraday



마을과 학교! 서울과 경기! 마을교육공동체로 서로 물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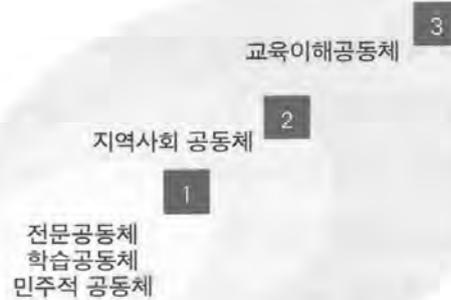
VI. 모형과 범위



VI. 모형과 범위

교육공동체의 범위

- 3 교육 활동의 직간접 이해 당사자들을 모두
- 2 학교와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관점
- 1 학교를 교육공동체 그 자체로 이해하는 관점



출처: 김용련 외(2014)

VII. 고려할 점

- ▶ 아이를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묶어두지 말자-기다림
- ▶ 공모 방식 대신 주민 참여 예산으로 운영



VII. 고려할 점

- ▶ 마을과 학교 담장 허무는 일 부터 시작: 마을 자체가 교육
- ▶ 공동체는 불편한 것: 감당할 의지가 있어야 함

VII. 고려할 점

- ▶ 공동체는 프로젝트 대상 아니다: 국가 통치의 편의성 높이는 시도에 반발
- ▶ 마을교육: 청소년들이 세상을 마주하여 생성한 관계의 총체

VIII. 덧붙임



VIII. 덧붙임





VIII. 덧붙임

“나는 예술가 연맹 의장, 코뮌 구성원, 시장 직을 맡는 대표, 공교육부 대표를 맡고 있다 ... 파리는 진정한 천국이다! 경찰도 없고, 허튼 수작도 없으며, 어떠한 종류의 부당한 요구도, 말다툼도 없다. 영원히 이렇게 머물 수 있다면 좋으련만, 요컨대 그것은 아름다운 꿈이다. 모든 정부 기관은 연방제로 조직되며 자치적으로 운영된다.”

VIII. 덧붙임

- ▶ 1871 3월 파리 코뮌 성립(27만 시민이 선출). 리옹, 마르세유 등 확산
- ▶ 작업장 몰수 후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으로 전환. 빈 건물 징발-공공 거주지로.
- ▶ 민중의 정치 교육 완수하고, 민중의 권리를 옹호



VIII. 덧붙임

- ▶ 5월 28일 프랑스 정부군의 코뮌 해체
15,000~30,000명 학살, 38,000명 체포
- ▶ 쿠르베: 6개월 동안 투옥, 전 재산 압류
- ▶ 석방 후 스위스로 망명, 1877년 사망
- ▶ 쿠르베는 스타일(예술 양식)을 통한 자유와 비판을 통한 자유를 '아나키즘'이라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 모두 실현



VIII. 덧붙임

- ▶ 공동체 community
라틴어 commúnitas
- ▶ com = 함께
- ▶ múnitas = 선물을 주고받다



마을과 학교!
서울과 경기!

마을교육공동체로 서로 뭉들다



읽기자료 2

마을공동체 정책과 지역사회 시민생태계

유 창 복

서울시 협치차문관



마을공동체 정책과 지역사회 시민생태계

유 창 복

서울시 협치차문관

왜 마을인가?

요사이 마을이 대세다. 여야를 불문하고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마을정책을 전면
에 내세우고 있다. 민선 5기를 거쳐 6기에 들어서서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다. 왜일까? 21
세기 첨단 글로벌 시대에 농경시대로 시간을 되돌리자는 낭만적인 시도일까? 그렇다고
종교나 특정 이념으로 무장한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은 더더욱 아닐 터, 과연 마을
이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

있는 집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기획력 있는 엄마와 돈 많은
할아버지, 거기에 무관심한 아빠가 삼위일체로 합작해야 애들이 공부 잘하고 ‘in 서울’이
라도 한단다. 있는 집 애들이 인물까지 좋다는 푸념에 우스개로 넘겨보지만, 있는 집 애
들이 성격도 좋다는 말에는 멍해진다. 씁쓸하다. 해방 이래, 국가가 주도한 압축적인 근
대화정책으로 보리고개가 없어지고, 통신강국의 반열에 오르고, 맹장염 수술에 천만원대
의 병원비를 지불할 필요 없는 공공의료체계 만들어졌다. 한 반에 80명이 넘는 애들이 드
글드글 2부제로 돌아가던, 초등학교 가건물 교실의 기억은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아득한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하지만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아 빈부격차는 훨씬 모질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만들어
낸다. 한 가족이 단칸방에 모여 자살하고, 소리 소문 없이 외로이 죽어가는 노인들이 허
다하다. 공부, 공부, 아이들이 시험과 경쟁에 찢어 10대를 보내고, 대학 내내 취업준비로
파~란 청춘을 다 쓸어 넣지만 취업은 난망하다. 어쩌다 일자리를 얻어도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이라 해도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몰라 불안한 30대를 보낸다. 40줄에 들어서면 ‘새끼
들’ 대충, 건사하는 것도 버겁기만 하다. 50대면 퇴직하지만, 자식은 대학을 졸업하고 근
대까지 갔다 와도 집에서 죽친다. 이렇게 다들 심란하게 살아가는 고단한 가장들을 자식
으로 둔 노인들, 자식 교육에 부모 봉양에 한 인생 다 받쳐온, 옛그제만 같이 생생하기만
한 지난 시절이 서럽고 허하다. 100세까지 산다지만 도리어 걱정이다.

이제는 성장을 해도 고용이 동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동화와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그나마도 유연노동제로 갈수록 불안해지기만 한다. 이미 저성장 궤적에 진입한 한국경제, 있는 사람들한테야 참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지만, 아예 없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좀 있어도 시원찮게 있는 사람들에게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간당간당 매달리듯 버티는 그 수준에서 더 밀려나면 어쩌나 전전긍긍, 더 불안하기만하다.

형편이 고만고만한 사람들, 어떻게든 살아낼 궁리를 해야 한다. 이웃끼리 함께 어울려 하소연하고 묘책 찾아 궁리하고, 그러다 십시일반으로 품앗이로 협동하여 해결하자고 나서 보는 거다. 어쩌다 문제가 풀리면 풀려서 좋고, 비록 안 풀려도 끈다고 애쓰면서 맺은 살가운 이웃관계가 또 다른 해법의 불씨가 된다. 그래서 마을을, ‘시급하고 절실한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고, 궁리하고, 협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웃들의 관계망’이라 한다.

그렇다. 전통사회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마을이 세상을 다 구원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관료들이 나선들, 뚝 부러지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다. 풀어야할 문제들이 더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나선다 해도 시민이 동행하지 않으면 역시 힘에 부친다. 동네에서 주민들이 이웃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스스로 직접 ‘나서야’ 시민단체들도 힘을 받고, 국가도 허투로 하지 못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마을이 혁신의 불씨이고, 희망미래의 마중물이다.

등장과 연결

3년 전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 마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마을은 정부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주민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 3년 서울시 마을정책의 목표는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주민을 등장시키는 일에 그 초점이 두어졌다. 3인 조례¹⁾, 작고 만만한 사업, 수시공모제, 포괄예산제, 사전사후 지원시스템, 주민참여심사제 등이 주민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들이었다.²⁾ 그 결과 대략 10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주민으로 나섰고, 3천여 개의 주민모임이 등장했다.

등장한 주민모임들은 비슷한 동네끼리, 비슷한 의제별로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렇다. 마을이란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가 되고 나아가 동네의 필요가 될 때, 비로소 나의

1) 마을공동체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민 3인 이상이면 누구나 서울시가 실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사단법인 등의 법인격이 있는 경우에만 그 자격이 부여되어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이 서울시 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2) 상세한 내용은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유창복 지음, 휴머니스트, 2014) 2부를 참조.



필요가 해결되기 쉬운 것이다. 개인의 필요를 공감하는 몇몇 이웃들이 모여 시작한 주민 모임이 어느덧 다른 주민모임들과 연결된다. 모임마다 직면하는 공통의 어려움과 과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문제가 함께 풀리는 경험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초등 3학년 머스매 방과후가 걱정이었어요. 학원에 보내도 아이가 건성이고, 흑여 판 데로 새는 것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이제 품 안에 자식이 아닌 거예요. 우연히 알게 된 같은 반 아이 엄마와 하소연 하던 중 비슷한 또래를 가진 엄마들이 뭉치게 되었어요. 제 막내 시누이도 근처 사는데 그 집도 맞벌이라 고민이 비슷해서 부르고, 시누이가 아는 또래의 다른 엄마를 또 부르고 이런 식으로 5명 엄마가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 5일을 나누어 하루씩 맡아서 아이들 한꺼번에 돌보기로 했지요. 아이들이 더 신나 하더라구요. 주말에는 엄마들이 다 모여 지난주 아이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지요. 어느덧 화제는 아이들 문제에서 시월드로 남편 직장으로 종횡무진 넘나들게 되지요. 마치 여고 동창들을 만나기라도 한 것 같이 즐겁고 친정 식구들보다 오히려 부담이 없어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슬슬 어려움이 생겨요. 아이들 공부 봐주는 일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요즘 초등 수학 너무 어렵잖아요. 머스매들은 또 바깥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들이 감당하려니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공간이 문제였어요. 다들 사는 게 고만고만해서 집이 넓지 않으니 머스매 다섯이 천방치축 우글대니 집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공간이 절실한 거지요. 역시 동네 왕언니의 소개로 동네에 다른 모임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이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준비하는 부모모임과 합창단을 하는 모임들이었어요. 인근에 우리 모임 말고 그런 분들이 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하더라구요. 그런데 모두 ‘공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 고민거리가 같았던 거지요. 각각의 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한 바퀴 돌고 부터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더니 공동공간을 만들기로 합의가 나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이었죠. 이렇게 결론이 나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하하. 지금은 공동으로 만든 작은도서관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아예 통합해서 진행해요. 전문 선생님을 한 분 모시니까 엄마들의 부담도 훨씬 덜게 되고요. 아이들도 합창동아리를 만들어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로 확인되는 순간, 나의 필요가 해결되고, 나아가 동네의 필요로 좀 더 널리 공유되면서 가로막는 걸림돌이 치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을공공성’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필요로 시작하지만 동네의 과제로 해결되는 것이 마을이고, 마을공공성이 실현되는 방식이다.

마을공공성과 공론장

공공성이란 평등한 주민들이,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합의하고, 협동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 공공성이 재생산되는 원리가 바로 ‘민주주의’ 아닐까? 지난 세월, 국가가 주도한 공공성, 시민단체가 자임하여 대변한 공공성을 넘어, 이제는 마을이 생활세계로부터 공공성을 다시 재구성해내야겠다.

한국전쟁 이후, 1960~80년대에 한국사회의 근대적 과제는 국가가 주도했다. 엘리트 관

료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공공성 실현을 담당했다.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동력으로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등 후발국가의 근대적 과제의 대부분을 빠른 속도로 성취해왔다. 하지만 '권위주의와 획일성, 기득권과 양극화'가 공공성의 위기로 진단된다.

80년대 격동의 민주화운동 시대를 거치고 나서, 1990~2000년대에 우리사회 공공성 창출의 과제는 시민사회로 그 바톤이 넘겨진다. 국가가 주도한 공공성의 혁신을 자임한 시민단체들은,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민주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파고들어 혁신을 시도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시민운동에 시민이 없다'는 반성이 나온다. 시대적 과제를 떠안기 보다는 분과적인 '전문가주의'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

위임(委任)된 권력에 기초한 국가의 통치적 주도이든, 자임(自任)의 진정성에 기초한 시민단체의 계몽적 주도이든, 우리사회의 공공성은 위기에 처했다. 이 공공성의 과제를 누가 다시 떠안아야 할 것인가?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한다. 생활의 필요를 이웃과 함께 하소연하고, 함께 궁리하고, 이웃과 함께 협동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생활의 필요를 공공의 필요로 전환시키면서, 이웃들과 지속가능한 협동적 생활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이게 바로 마을이다. 마을이 공공성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민선 5기에 씨를 뿌렸고, 민선 6기에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이다. 2010년대는 바야흐로 마을공공성의 시대이다.

마을공공성은 시민공공성을 다시 부추기고, 국가공공성을 바로잡는 힘이 된다. 그래서 마을은 공공성의 혁신이다. 마을이 혁신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다양한 차이넘기와 가로지르기를 필요로 한다. 평소 살가운 이웃들 사이의 '끼리끼리'의 친밀성을 담아내면서도, 동시에 뛰어넘도록 해주는 '공공성'이 일상의 생활관계 속에서 떠올라야 한다. 소통의 난관이 대두된다. '좋은 게 좋다'를 넘어서는, '정의'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하는 만만찮은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바탕으로 공통의 의제를 합의하고 메타의제를 도출하는 '공론장'이 절실하다. 동네의 필요를 합의하고 실행하는 마을공론장이 필요하다. 이곳은 다양함이 풍부함으로 숙성되는 '판'이며, 이 과정은 주민이, 공동체사회의 구성원이자 국가공동체의 주권자인 '시민'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그래서 마을은 우리사회의 민주적·공동체적 시민주체가 성장하는 터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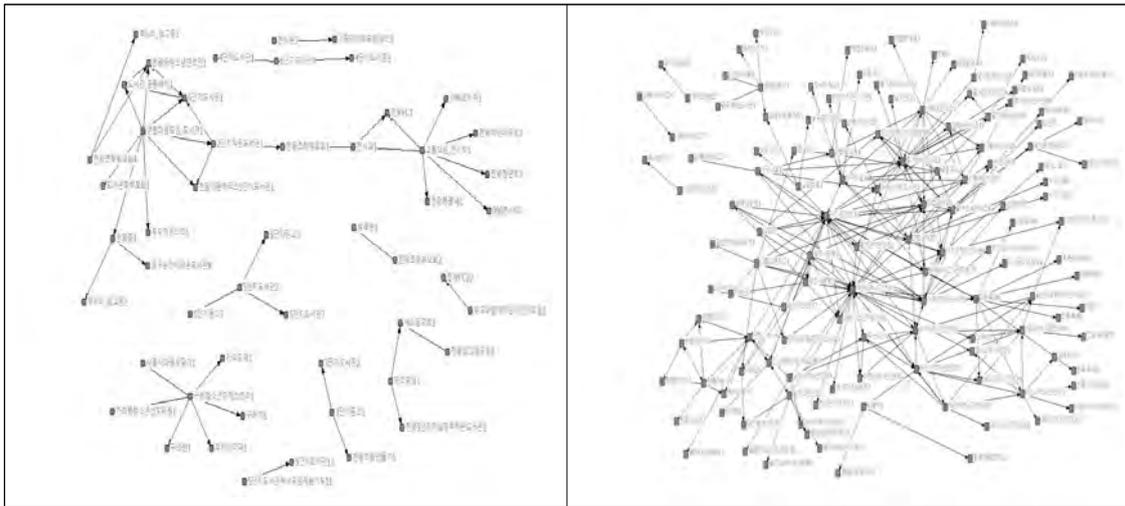
이제는 성장, 마을의 형성

등장과 연결, 그 다음은 '성장'이다. 성장은 마을의 형성이다. 작은 주민모임들이 연결되면서 동네의 필요를 의논하고 그 해결을 위해 협동하는 이웃관계망을 만드는 일, 바로



마을을 만드는 일이다. 이제는 주민이 등장하고, 연결하기 시작했으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만들어진 주민들의 관계망은 아직은 ‘마을씨앗’에 불과하다.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밀어 올려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마을의 꼴을 갖추게 된다. 토양과 종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연결망 그림] 구로구 00지역에서 마을사업 이전과 이후의 관계망 변화도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다양한 생활의 필요에 기초한 주민모임의 형성을 지원했던 1기와는 다른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이른바 ‘점과 선’(點線) 전략에서 ‘면’(面)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양한 의제를 일일이 지원하는 백화점식의 다양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집중’을 해야 한다. 집중을 통해 임팩트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난 1기를 돌아보면, 무엇보다 주민들이 작은 지원금이지만³⁾ ‘자유롭게 상상하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1기에 개별 주민이 3인 이상 모여 등장한 것이라면, 이제 2기에는 이들 주민모임이 연결된 마을씨앗이 등장해야 한다. 그러려면, 마을씨앗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이 각 부서별로 정한 지원금을 각개약진 식으로 내릴 것이 아니라, 마을씨앗들이 스스로 동네에서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 상상하고, 우선순위와 실행방법을 이웃들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야 자발성과 지속가능한 힘이 쌓이고, 그 힘이 마을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지원이 ‘뺏살로 가지 않고 근육으로’ 가도록 하는 것, 정부지원이 주민의 등장과 연결에 그치지 않고, 마을형성으로 귀결되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마을정책의 목표이다. “정부가 나서서 마을이 만들어지는가?” “Top down해서 Bottom up이 나오는가?”⁴⁾ 라

3) 오히려 100만원 내외의 소액 지원금으로 주민들이 부담을 덜 가지고 소소하게 이웃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정부의 민간보조금은 주민들이 동네에서 마을활동 하는 것을 만만하게 여기며, 즐겁고 자발적으로 마을모임을 만들어가는 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

4) 박원순 시장의 민선 5기 임기 초, 마을정책을 민관이 합동으로 만들어갈 때, 일방적 관주도를 탈피해

는 서울시 마을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궁극적 질문은 ‘면 단위의 종합지원과 마을형성’으로 그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른바 ‘면’ 차원에서 요구되는 절실하고 시급한 필요를 모아 내고, 면 단위의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른바 종합지원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잘게 쪼개진 공모사업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진다. 더욱이 그 지원이 마을형성으로 귀결되지도 못한다.

개별의 주민모임들이 지리적으로 유사한 지역에서 서로 연결하여 공통의 과제를 발견하고, 전체가 필요로 하는 메타의제를 찾아낸다. 그 과정에서 좀 더 확대된 관계망에서 더욱 능력 발휘하는 주민리더를 발견하는 것이다. 혼자로는 엄두도 나지 않던 일이 모이니 해볼 만한 거다. 우리끼리 모여서는 ‘그 나물에 그 밥’이었는데, 큰 판이 되니 새로운 능력자들이 나타나고 별의별 재주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무척 풍성하다. 드디어 마을의 등장이다. 마을 이름도 정해보고 마을의 바램도 모아보고, 마을의 비전과 희망을 정해보기도 한다. 마을의 호명, 자꾸 불러주고 마을이라는 틀로 내용을 궁리하다 보면 그게 곧 마을이 되는 길이다.

혁신의 융합과 지역사회 시민생태계

이제 서울마을네트워크(이하 마을넷) 5)가 등장할 시기다. ‘주민의 연결과 마을로 성장’이라는 과제를 책임지고 촉진하는 역할이 바로 ‘마을넷’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이미 마을넷은 등장했고, 3년여 동안 실체로 성장했다. 3년 전 마을센터가 설립되기 전부터, 우리는 서울시 행정과 대등하게 마주할 주체가 바로 마을넷이라고 했다. 그래서 마을넷은 몇몇 NGO기관이나 풀뿌리단체 대표들의 협의체가 아니라, 참여의 의사가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현재 서울시 25개구 대부분에 마을넷이 결성되어 마을살이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공론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마을넷은 최근 2년 동안 25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출산한 바 있다.6) 이제 마을넷은 구청과 대등하게 마주하는 협치의 민간파트너로 성장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를 실현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시민생태계’를 구성하고 활력을 일으키는 유력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야 하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투입(top down)하더라도 그 성과는 상향적(bottom up)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5) 2012년 서울시 마을정책을 실행하는 초기에, 서울시 행정과 마주할 민간 측 파트너 역할을 담당할 주체로 서울마을넷을 설정하고, 구 단위의 마을넷의 형성에 주력했었다.

6) 자치구와 지역사회의 민간의 형편에 따라 민간위탁 센터형, 행정직영 센터형, 민간주도 네트워크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한편, 지난 3년 서울시 혁신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마을, 청년, 사회적경제, 인생이모작, NPO, 혁신 등 혁신부문의 중간지원조직들이었다. 이들 혁신 중간지원조직들은 모두 행정 내 과(課) 단위의 부서와 연결되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 과 단위의 행정기관이 각기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방식으로 지원·관리하고 있다.

서울시의 해당 과들은 그동안 각기 중간지원조직을 통하여 혁신의 사례를 만들고 혁신의 주체를 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마을과 청년, 그리고 인생이모작의 영역에서는 새로운 시민 주체들이 등장하고 혁신의 사례를 만들어냈다. 사회적경제와 NPO는 기존의 혁신주체들에 대한 활로 개척을 지원하며 새로운 주체들의 등장을 촉진했다. 가장 최근에 설립된 혁신지원센터는 불광동 혁신파크에, 혁신적 솔루션을 사회문제에 적용하여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팀들을 대거 초대하고 본격적인 활동채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부문에 걸친 혁신주체들의 ‘등장’이라는 성과는, 이들 주체들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마주한다. 마을에서는 이미 다양한 작은 주민모임들이 인근 지역끼리, 비슷한 의제끼리 연결되고, 마을기업으로 진화를 꿈꾼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여러 주체들이 마을관계망에 파고들고, 청년과 베이비부머들이 마을관계망의 유력한 주체로 등장한다. 기존의 NPO, NGO 활동가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찾기 위해 마을관계망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다. 이른바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각기 영역별로 등장한 혁신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융합의 기운이 지역사회에 움트고 있는 것이다.

협력적 거버넌스와 융합적 지원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은 서로 연결하고 협동하면서 닥친 문제를 해결한다. 즉,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이니셔티브는 ‘융합적 생태계’로 존재하고 성장한다. 하지만 중간지원조직은 행정부서의 칸막이와 꼭 닮은꼴로 각기 칸막이가 쳐있고, 이미 융합의 길로 들어서려는 지역사회에서 부서별로 각개약진을 한다.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피로감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행정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위험관리와 성과관리’(행정의 편집)를 강화하게 되고, 시장이 임기를 채워 가면 갈수록 그 관리의 강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칸막이 관리가 강화되면, 중간지원조직의 지역사회에 대한 각개약진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 혁신정책의 현주소 아닐까? 거버넌스의 위기상태로 진단해도 지나치지 않는 상황이다. ‘주민주도’(시민 이니셔티브)

란, 시민이 더 이상 ‘참여를 빙자한 동원’의 대상이 아니며, 시민의 진정한 참여를 위해서는 ‘주도’에 이르러야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박시장이 강조한 시정원칙이다.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이 융합되어야 한다. 행정의 칸막이가 허물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민과 관의 협업지대인 중간지원조직들이, 지역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시민생태계의 융합적 흐름에 어울리도록 변신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기 때문이다.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들의 정책통합력을 강화하고, 기초에서는 마을, 사회적경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등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조직적으로도 융합하는 것이 좋겠다. 광역에서는 상설적인 정책조정회의로, 기초에서는 민간위탁형 융합중간지원조직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

재작년부터 논의하고 원칙적으로 합의해온 일이지만 추진이 쉽지 않다. 이제는 서울시가 정책으로 융합과 통합을 촉진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조직통합의 건조한 논의로 빠지지 않도록, 혁신 영역의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변화를 추진하면 좋겠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아파트활성화, 지역재생처럼, 다양한 혁신의 주체들이 함께 어우러져 협업할 때 그 혁신성이 잘 도드라지는 사업을 집중적(전략적)으로 추진하면서, 혁신의 지원체계를 융합하고, 지역사회 시민생태계의 융합적 진화를 촉진하고, 결국 시민이니셔티브를 현실화하면 좋겠다.

마을 2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정 및 시민사회의 환경은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시장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이라 행정의 관리모드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협치’를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로 세우고 갈 예정이다. 단지 구호로 그치지 않을 것 같다. 협치시정을 진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박원순 시장의 협치시정 의지가 강력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양면적인 시정 환경을 잘 살피며 지혜롭게 헤쳐가야할 때이다. 전통적인 시민사회의 주체들은 이러한 협치시정의 흐름을 타고, 민관협력의 실행계획을 궁리하게 될 것이고, 지역사회에서도 구청과 지역사회 민간주체들이 협치테이블에 둘러앉아 민관협력의 실천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에 나서게 될 것이다. 마을은 지역사회의 한 주력으로, 시민사회의 생활현장으로서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어야겠다. [끝]

마을과 학교!
서울과 경기!

마을교육공동체로 서로 뭉들다



읽기자료 3

왜 마을교육공동체가 필요한가?

홍 인 기

상탄초등학교 교사, 영주산마을공동체



왜 마을교육공동체가 필요한가?

홍 인 기

상탄초등학교 교사, 영주산마을공동체

1. 마을교육공동체 왜 주목받게 되었나?

최근 마을 교육공동체는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핫(HOT)한 이슈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 여러 교육감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교육감 당선자 중에서 선거 과정에 공약으로 발표하였던 분들이 계셔서 그 내용을 인수위 과정에서 구체화 하여 정책으로 펼쳐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말을 새롭게 주목받게 한 사람은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씨이다. 박원순씨가 희망제작소에 소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전통을 살리고 특색을 가



꿔 공동체 복원에 힘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를 집필하고 그 후속작으로 2006년 4월부터 4년간의 지역 투어를 통해 2010년 <마을이 학교다>를 발표했다. 박원순씨는 두권의 책을 통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교사들의 이야기와

황폐해진 교육 현장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희망'을 소개했다. 지역 사회와 밀착하여 학부모와 학생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켜 재미나고 창의적 발상이 돋보이는 교육 방법을 적용한 다양한 교육의 사례들을 우리 교

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다. 이 책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공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열어주었다.

교육 정책을 고민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고민하게 되었다. 두권의 책을 통해 박원순씨는 자본주의와 입시경쟁으로 힘들하는 우리사회에 공유의 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이 살아남을 방법을 보여 주었다.

이후 박원순씨는 서울시장에 당선되어 자신의 꿈꾸어왔던 여러정책들을 서울시에 구체

적으로 실현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사업이 있다.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자신의 지역에서 사업으로 펼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마을공동체 공약이 쏟아지고 교육계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 공약이 생겨나게 되었다.

2. 사회적 약자로 살아야 할 아이들을 위해

1) 공동체는 약자의 언어이다.

축구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여성분들이 축구이야기 특히 군대에서 축한 이야기를 참 싫어하는 것을 잘 알지만(웃음) 꼭 해야겠다. 현재 전세계의 돈이 가장 모이는 리그는 스페인의 프리메가리가 입니다.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축구팀은 메시가 뛰고 있는 FC 바로셀로나(사진)와 호날두가 뛰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사진) 두 팀입니다. 두 팀의 경기는 단순한 클럽 대항전의 성격을 뛰어넘습니다. “엘클라시코”로 불리는 두팀의 경기는 사실상 한일 축구경기의 성격을 띤다. “FC 바로셀로나”는 다른 팀들과 달리 협동조합 형태로 유지되는 팀이다. 19만 명의 조합원 (소시오)가 연회비로 1인당 177유로(약 22만원)를 낸다. 이 클럽의 모토는 ‘클럽 그 이상의 클럽’이다. 유니폼 광고로 한해 400억(2011년 계약 금액)을 벌 수 있었지만 돈을 버는 대신 그들은 오랜 세월 유니세프를 광고하여 세계



의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일을 해왔다. 협동조합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바로셀로나가 있는 지역은 카탈루냐는 고유한 언어와 국기를 가진 지역이다. 한마디로 스페인의 변방인 셈이다. 최근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이 좌절되자 가장 좋아했던 나라는 스페인이다.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 될 경우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 논쟁이 재 점화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카탈루냐는 오랫동안 분리 독립을 꿈꾸어 왔기에 프랑코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스페인이라는 나라로 볼 때 협동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두 지역은 변방이며 소외된 지역이며 지역적인 차별을 받아온 곳이다.



현재 박물관으로 쓰이는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발생지

만약 우리의 자녀나 학생들이 세계적인 축구클럽을 만들어야 한다면 벼락부자가 되어 기존의 클럽을 인수하거나 만드는



것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클럽을 만드는 방식중 어느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 일까요? 저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협동조합이 시초로 알려진 영국의 로치 데일 공정선구조합(1844년)은 28명의 방직공들이 적은 임금으로 좋은 생필품 구입이 어렵게 되자 필요한 생필품을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쉽게

말해서 좀더 좋은 생필품을 위해 공동구매를 한 것이다.

협동조합으로 거대 전자회사까지 만들었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 있다. 바스크 지역 역시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원하는 지역으로 왕당파와 손을 잡았던 독재자 프랑코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스페인이라는 나라로 볼 때 협동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두 지역은 변방이며 소외된 지역이며 지역적인 차별을 받아온 곳이다.

소외된 지역에서 주류사회와 경쟁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협동조합이다. 스페인 내전이라는 참혹한 전쟁에 의한 반성과 성찰의 결과가 스페인의 유명한 협동조합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많은 교육공동체는 대부분 공동육아에서 시작했다. 남성중심의 경쟁사회에서 많은 부부가 맞벌이를 함에도 육아는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은 지금 '집중적인 경쟁 구조' 속에 있다. 우리사회 속에서 여성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날마다 고통과 모순을 경험하는 일이다. 이 절박함에서 공동체가 나온 것이다. 아이들에게 정말 올바른 가치로 어린 시절만이라도 제대로 키워보려 했던 그들의 이상이 공동육아라는 협동조합으로 뭉쳐진 것이다.

2) 대부분의 아이들은 약자로 사회에 던져진다.

우리 시대는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부모세대가 겪었던 풍요로움이 사라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의 문제이다. 부모세대들은 한국사회가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직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시대에 태어났다. 그래서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후 쉽게 직장을 얻을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공무원이 되는 것이 80년대에는 가능한 일이었다. 평생이 보장되던 안정된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기여서 취업이 지금보다 훨씬 쉬운 시기였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성장은 있어도 고용이 없는 발전이 이어지고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장하면서 정규직을 채용하기 보다는 많은 일자리를 외주를 주어 비정규직의 형태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일본이 고속성장을 이루고 있을 때는 새로운 주택의 수요가 주로 신혼가정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주택의 모습은 부모세대들이 성장한 자녀들이 취업이나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게되면서 은퇴한 부모들이 성장한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들이다. 일본은 이미 정규적인 직업을 가지지 않는 자녀들을 부모들이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시대는 절박해지고 지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은 구조적으로 약자로 키워지고 있는 것이다. 약자들은 결코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제자들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어린시절부터 몸에 익혀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3. 학교가 학교 다워지기 위해

1) 학교의 역할은 커지고 조직은 비대해지고 있다.

저는 93년도에 교직에 첫 발을 내디딘 후 20년 동안 다양한 변화를 경험해 왔다. 분명한 사실은 학교가 끊임없이 사회로부터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교육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교에는 방과 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학교에 정말 많은 일들을 가져다주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교과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학교에 급식실이 생기면서 학교급식이 일반화 되었고 2010년 이후 보편복지의 차원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졌다. 고등학교에서는 저녁까지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아침을 굶고 오는 아이들 때문에 학교는 아침 식사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학교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서비스를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는 초등학교에서는 원하는 모든 가정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돌봄서비스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 발령초기 학교에는 상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는 없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함께 시장의 확대를 위해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사회문화로 인해 개인이 책임지는 영역은 줄어들고 대신 국가가 공무원조직을 통해 감당해야 하는 일은 늘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의 역할은 줄어들기 보다는 늘어갈 가능성이 많다. 학교가 사회로부터 새롭게 요구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학교조직을 끊임없이 팽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학교조직이 방대해질수록 학부모나 지역과의 소통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부논리가 복잡해지고 강화될수록 외부와의 소통이 어려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 학교는 근본적으로 학부모의 권한위임으로 발생한 조직이다.

학교가 학부모나 지역과의 소통을 줄여나가는 것은 학교가 근본적인 존재이유에 역행



하는 일이며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자녀 교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는 천부적인 것이다.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자녀교육의 권리를 부모가 국가에 위임하고 국가는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여 자녀교육을 대신해 왔다. 물론 교사가 부모로부터 자녀교육의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교사가 가진 전문성을 근거로 자녀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수술방법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선택권을 보장하지만 수술에 들어가게 되면 일일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도구나 방법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경우 압축된 근대화 과정을 통해 국가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특혜였고 공급이 한정되어 있어서 부모가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이 생략되었고 부모의 학교선택권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가 무시되어 왔다. 압축된 근대화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은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고 관료조직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이다. 관료조직은 산업화를 이끌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도구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학교가 새로운 발전으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고 있다. 관료조직은 책임감이 뛰어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이나 자기 내부적인 완결성으로 인해 외부와 소통하기 어렵고 조직의 확대를 추구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학교가 자신의 탄생이 가능하게 했던 근본적이 사회계약의 전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독자성을 강조하거나 관료조직에 의한 일방적 의사결정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학부모의 '권한위임'에 의해 발생한 학교라는 조직이 학부모와의 소통과 점점 멀어져 일정한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학부모들이 '권한위임 철회'라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조직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학부모나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학교가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이후 학운위)'를 운영하고 있다. 학운위가 좋은 기구이긴 하나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학운위는 협치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이 장치마저 소수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구로 선택되는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고 초기 출자금액과 상관없이 1인1표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이 필수적이다. 조합원의 참여가 없이는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란 불가능하다. 학교안의 민주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좋은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3) 돌봄의 영역을 책임질 지역사회

학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인 교육의 기능 이외에 방과후나 급식과 같은 돌봄의 영역 지역사회가 책임져야할 영역이다. 하지만 지금 지역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압축된 근대화로 인한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는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학교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돌봄의 영역을 해결해 나갈 주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

서는 안되겠다. 흥성의 풀무학교의 사례처럼 지역의 다양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지역조직의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초기에는 학교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학교가 지역속으로 스며들게 되면 학교는 다양한 교육인프라는 지역속에서 가지게 될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함께 일한 지역의 파트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함께 학교가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4. 교육과정이 교육다워지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은 한 사회가 계승 발전한 문화를 다음세대에 잘 전수하기 위해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것이다. 교육이 가지는 근본적인 고민은 지금 세대의 좋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더불어 자라나는 다음세대가 지금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과정이 대부분 미국의 영향을 받거나 최근 북유럽의 영향을 받고 있다. 문제는 우리만의 고민이 없다는 점이다.



충남 흥성의 풀무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를 키우는 학교이다. ‘위대한 평민’이라는 학교의 교훈에 어울리게 한국농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유기농 재배를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냈다. 결국 학교가 위치한 흥동은 다른 농촌지역과 달리 농촌 인구가 늘어가고 새롭게 유치원이 생기는 등 놀라운 변화를 일구어 내면서 한국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풀무학교에서 오랜 시간 학생을 가르치고 교장역할을 잘 감당하셨던 홍순명 교장선생님은 입버릇처럼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한국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삶과 배움이 멀어지고 있고 배움이 자신의 삶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들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지식경쟁에서 이기는 과정에 익숙해지면서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배움이 내가 속한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기만 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못하며 희망이 없는 것이다.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리하고 기억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일은 좋은 알고리즘



만 있다면 컴퓨터가 사람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가능한 지식을 혹은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는 수학문제를 열심히 암기하거나 푸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컴퓨터는 알고리즘의 개발을 통해 인간보다 더 빨리 주식을 투자하고 심지어는 신문기사도 쏟아내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컴퓨터가 대체하지 못하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하는데 그 능력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안에 좀 더 지역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역의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체험학습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의 외부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교사가 교과와 상관없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역의 특산물이나 향토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과정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확대 되어 갈 것이다.

5. 풍성한 삶이 가능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을이 있어야 하고 마을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도시 생활속에서 같은 아파트에서도 옆집에 혹은 아래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알 수 없는 생활이 자연스러워지고 때로는 개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편리함이 있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육아를 위해 장시간 가정에 머무르는 주부에게 도시생활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도시안에서 마을을 만들어 가기는 정말 쉽지 않다. 예전에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마을에서는 고된 노동을 함께하기 위해서 공동체 형성은 필수였지만 도시에서는 직업도 서로 다르고 맞벌이를 해야만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에 부부 모두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는다. 도시생활에서 마을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접점은 아마 교육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나 학교는 생경한 이웃주민을 하나로 묶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한국사회는 특히나 자녀교육에 관한 열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주변에 아이들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주변 아이들과 우리 아이가 협력하면서 자라는 것이 아이들 교육에 이롭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OECD가 DeSeCo 프로젝트 통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3가지 영역에서 9가지를 추출하였다.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능력이 필수이다. 지금의 학교 교육은 도구를 상호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표1] DeSeCo 프로젝트가 도출한 핵심역량

핵심역량	하위역량
1.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Use tools interactively)	① 언어, 상징, 텍스트 등 다양한 소통 도구 활용 능력 ②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③ 새로운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2. 이질적인 집단 속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④ 협업/협동능력 ⑤ 인간관계 능력 ⑥ 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
3.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Act autonomously)	⑦ 사회/경제적 규범 등 주변 큰 환경을 고려하면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능력 ⑧ 자신의 인생계획, 프로젝트를 구상·실행하는 능력 ⑨ 자신의 권리, 필요 등을 옹호·주장하는 능력

(출처: <http://www.oecd.org/pisa/35070367.pdf>)

마을교육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부모들은 훨씬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다. 이웃과의 소통은 자연스럽게 삶의 풍요를 가져온다. 대부분 자녀가 한 두명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혼자 돌보기 보다는 아이들이 여럿이 모이면 아이들 끼리 잘 노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서로가 가진 음식들을 조금씩 나누어도 식탁이 훨씬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되면 교육에도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잘 이루어진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커피숍과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가족행사나 친구모임을 집에서 치루지 않고 마을 커피숍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서 치루면서 다양한 모임이 활성화 된다. 마을에 함께 하는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에서 다양한 필요들이 채워진다. 인문한 독서모임이 생기기도 하고 기타나 우크렐레 등 악기를 배우는 모임, 다이어트 복싱이나 요가, 몸살림 운동 등 건강에 관한 강좌들이 개설된다. 가정에 쌓아두었던 책들을 모아 도서관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서재를 마을 도서관으로 개방하기도 한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방식으로 소통이 일어나게 된다.

개인이나 가정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장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통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대문을 나서 만나는 많은 이웃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대상이 것과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으로 가득한 것은 수준이 다른 삶이다.

마을과 학교!
서울과 경기!

마을교육공동체로 서로 맞닿는다



읽기자료 4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서 용 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서 용 선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기획단 장학사

마을교육공동체, 그 느낌과 공감

요즘 들어 마을교육공동체 논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학교든 마을이든 실천하는 곳이 조금씩 생기고, 교육청과 지자체의 관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대학 강의도 열리고, 책도 나오고, 여러 갈래의 연구도 진행 중이다. 좀 더 새로운 점은 교사, 학부모, 주민들의 관심이 함께 커가고 서로 연결하려는 흐름에 있다. 이런 점들이 운동과 만나 의미 부여되면서 더 따뜻하고 기분 좋아지게 한다. 사업이나 정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배가시키는 실천의 느낌이 감지된다.

물론 느낌 그대로를 공감으로 볼 수는 없다. 진짜로 공감하려면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실천에서, 정책에서, 담론에서 다양하면서 역동적인 방식의 노력이 꾸준히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그 실체는 녹록치 않다. 학교에서는 “그게 뭐예요?”, “그걸 우리보고 하라구요?”라는 말이 서슴없이 쏟아진다. 마을에서는 “아휴, 학교는 정말 답답해!”,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사업만 하네.”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물론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학교에서 마을수업은 물론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마을체험이나 마을조사를 해본 학교나 중간 규모의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룬 곳에서의 소리는 다르다. “이건 우리교육에 아주 중요한 흐름이 될 수 있어.” 교육청도 지자체도 이런 저런 소리들이 돌고 돈다. 사실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시끄러운 말보다 오히려 대부분은 아예 모르거나 알아도 무관심한 게 현실이고, 이게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확정짓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초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자체가 느슨하게 열린 개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을공동체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

마을교육공동체 출발에 ‘마을공동체’가 자리하고 있다. 교육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과 담론 이면에 ‘마을만들기운동’, ‘생태마을운동’, ‘마을공동체운동’

등이 있다. 마을만들기운동은 ‘지역 공간을 주민 스스로 디자인해나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마을만들기, 마을디자인, 마을가꾸기, 마을진흥사업, 생태마을운동, 공동체 운동, 주민자치운동, 마을의제 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 내용도 정치, 문화, 예술, 건축,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물리적으로 한정된 작은 공간 속에서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정서적으로 마을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는다.

오래전부터 농촌에서는 긴 호흡의 마을만들기가 진행되었다. 녹색연합이 주도가 된 금산 건천리 생태마을이나 홍성 문당리의 농촌만들기 운동은 교육적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도시에서도 서울 인사동(전통)이나 성미산(육아), 대구 삼덕동(골목) 같은 도시에서 마을만들기 운동이 이어졌다. 그 가운데 공동체와 생태를 중심에 놓은 경남 산청의 간디마을 같은 생태공동체 마을도 탄생하였다. 이곳에 만들어진 간디학교는 마을공동체이자 마을교육공동체의 의미 있는 모델로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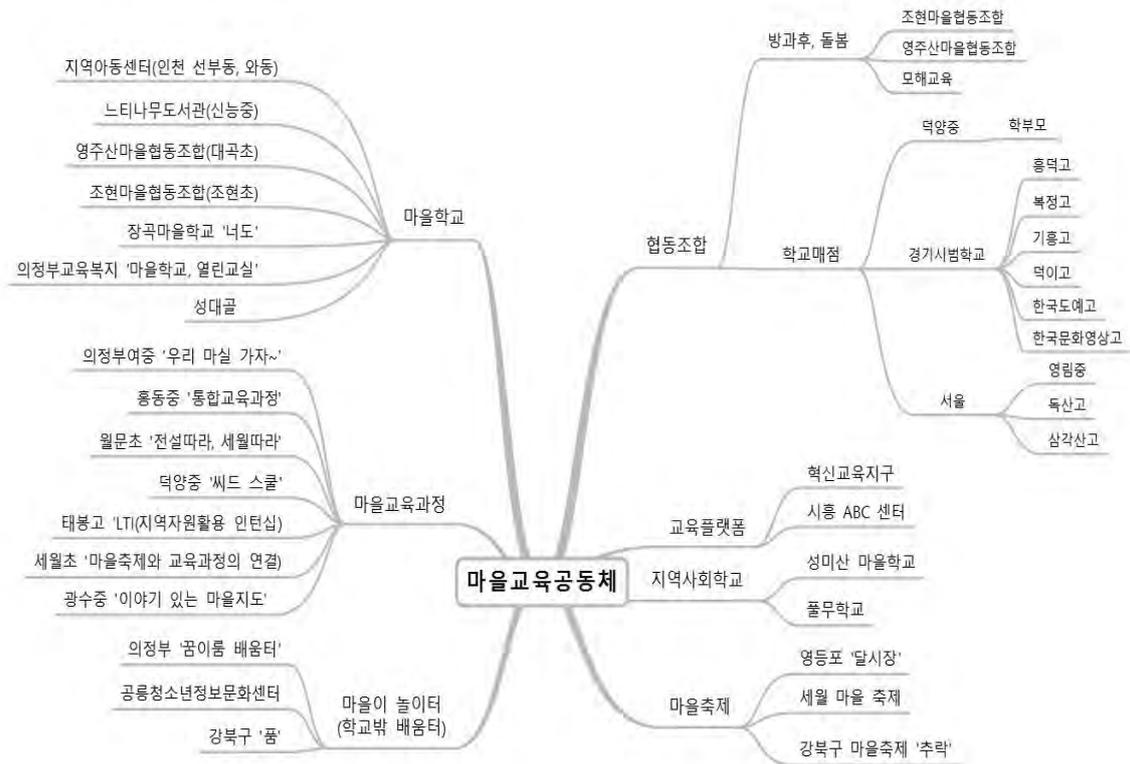
1970년대 우리나라는 농촌마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새마을운동이 있었다. 농촌 재건을 목적으로 한 이 운동은 도시로 확산되었고, 전 국민 의식개혁운동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문제는 전국의 3만 여개의 마을에 시멘트 335포를 균일하게 무상 지원하고 경쟁적·선별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개발은 있되 관계와 공동체는 사라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이와는 반대되는 새로운 마을공동체운동도 진행되었다. IMF 구제금융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민 주도의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대안경제운동과 맞물려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된 ‘지역공동체운동’이 그것이다. 여기서의 해체된 마을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외형’이 아니라 ‘내용’ 만들기,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관계와 가치’의 공간 만들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실천 활동을 담는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진행된 것이다.

현재도 서울 마포구 성미산, 성북구 삼각산 지역, 남원 실상사 지역, 전북 진안과 완주, 서울시와 경기, 광주 등의 마을공동체 등에서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와 만나고,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농촌의 지속가능한 소득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의미 있게 진행된 이런 마을공동체운동의 속살에는 ‘사람’이 있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 우리 학교에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 아이 키우기’가 본질로 함축되어 있다. 이 지점이 바로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가 접합되는 부분이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탄생

마을 안에서 공동육아와 보육을 하고, 심화된 혁신학교의 움직임 속에 마을학교, 마을교육의 분위기가 무르익더니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아래 그림은 지금까지 실천해온 우리 주위의 마을교육공동체 모습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본 것이다.



여기 학교와 아이, 어른들이 만나는 사례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공업도시 안산의 와동과 선부동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역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먼저 마을 어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인정도 받고 자긍심도 느끼고 있다. 아이들은 동네 정원을 대신 가꾸어주기도 하고, 공원을 찾는 어른들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먼저 소통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본받을 만한 어른들과 지역의 문화재를 찾아서 '동네문화재'로 선정해 책자로 만들고 있는데 그 결과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 서울의 마포 성미산마을, 우이동의 삼각산 재미난 마을, 상도동의 성대골 마을같이 대도시에서도 아이들을 매개로 마을이 살아나는 곳들이 적지 않다. 상도동의 성대골어린이도서관은 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민간도서관이다. 동작구의 풀뿌리 단체인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와 상도동주민들이 2년 넘게 모금 활동을 벌여 2010년 10월에 개관했다. 도서관을 만든 주축 멤버들은 이제 대안적인 방과후학교인 성대골 마을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마을카페 '사이시옷'도 비슷한 시기인 2010년 겨울, 지역주민 20명이 3백만 원씩 출자해 만들었다. 목수는 탁자, 실내장식업자는 블라인드를 기증하고, 미술학원 교사는 벽화를 그리고 꽃집 가게에서는 화분을 지원했다.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목공방 ‘성대골별난공작소’ 역시 주민참여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목공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위 사례들을 보면, 학교나 학교 밖 배움터가 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마을 속에서 풀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을교육공동체란 교육을 통해서 마을이 함께 꿈을 꾸면서 서로 연결되어 가는 흐름을 보인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학교, 지역사회, 센터 등을 탐방하면 이를 유형화할 수 있는 두 가지 준거가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을교육공동체의 규모와 이를 주도하는 중심 주체의 문제이다. 규모는 작은 마을(동·리), 중간 마을(읍·면·구), 큰 마을(시·군)로, 주체는 학교 주도형, 마을 주도형, 센터 주도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그 사례에 해당하는 곳을 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주 체 규 모	학교 주도형	마을 주도형 (학부모 및 지역 포함)	센터 주도형 (지자체 · 교육청 · 지역 운영)
작은마을 (동 · 리)	세월초등학교(세월리) 덕양중학교(고양 화전동) 조현초등학교(조현리) 두창초등학교(두창리) 남양주월문초등학교(월문리) 완주삼우초등학교	시흥 하중동 참이슬 마을학교 (하중초등학교 학부모) 고양 화전동 학부모회 (덕양중, 덕은초 학부모회) 삼각산 재미난마을	가능동 초록우산 의정부마을 (의정부여자중학교)
중간마을 (읍 · 면 · 구)	풀무학교(홍성 흥동면) 서중중학교(서중면) 광수중학교(퇴촌면)	서중면 교육포럼 (서중중, 정배초, 수입초, 서중초) 완주 고산향교육공동체 (삼우초, 고산중)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노원구)
큰마을 (시 · 군)	의정부여중(의정부)		시흥 공교육지원센터 (ABC행복학습타운)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완주군) 완주군 교육지원청 일본 커뮤니티 스쿨

실천 속에 담긴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

실제로 이루어진 마을교육공동체는 적잖게 존재한다. 학교에서 마을에서, 혹은 센터, 교육청, 지자체에도 마을교육공동체가 있다. 일시적인 마을교육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지속가능한 모습을 품은 오래된 마을교육공동체도 있다.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뤄지는 곳도 있고, 의도된 정책으로 형성된 곳도 있다. 이런 모든 곳의 특징과 장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춧돌이 되고 거름이 된다. 이곳에서의 약점과 한계들은 더 많은 고민과 문제해결의 과제를 부여한다. 여기서는 몇 개의 사례를 유형으로 나눠 제시해보고자 한다.



구분	학교		학교+지역			
	세일초등학교	의정부여자중학교	덕양중학교 (화전동 학부모회)	풀무학교 (흥동면)	서종면 포럼 (서정중, 정배초)	완주 고산향교육공동체 (삼우초, 고산중)
특성 • 재원 • 진행 • 리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학교 재원 • 지역으로 확산 • 이○○ 교사, 문화코디네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학교 재원 • 지역으로 확산 • 교사 3-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지자체 재원 초기 혁신학교 재원 • 지역으로 확산 • 교장 교사의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재원 없음 • 지역과 학교의 유기적 관련 • 흥○○ 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자발적인 재원 • 주민-학교 • 예술가-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 X-혁신학교 • 학교-주민 • 나열성 • 교장-학부모
방법론 • 계기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연극 • 마을통합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복지사업 (사회복지사) • 마을통합교육 토론회 (학생+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체와의 협약 • 마을통합교과 • 방과후 등 다양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지도 만들기 - 벽화그리기 (주민자치센터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가 지역조직 인큐베이팅-실험/협동조합 등 • 학교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관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주도 음악회 (학교 동참) • 서종교육포럼 (서종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 읽어주기 • 마을통합교과 • 교육포럼 • 다양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교육, 특가 - 중학교 진로교육 - 지역봉사활동 - 신문 만들기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교 탈출 • 인구 증가 • 인식 증대 • 공간(사량방)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통합교과 • 지역고민 학생모임 • 살고 싶은 지역으로 학생들의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수 증가 • 학교 지역 간 화학적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다수 • 인구 증가 • 장곡면으로 확산 • 자체 지속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양성 ② 역사성 ③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년 교과고민 • 본교 승격 • 공모제 교장 • 혁신학교 선정 • 서종초로 확산 움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학교 벨트 지정 • 지역 확산 • 12년 교과 고민 • 과외 재능기부 (교 2명)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전출 • 원주민과의 소통 • 공동체 의식 저하 • 방과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헌신에 의지 • 혁신학교 예산 감소 • 교육청지원 협조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내 마을이 녹아들지 못함 • 이주민과 원주민 간 화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갈등 존재 • 교사들의 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가 없음 • 교사 참여 미흡 • 주민갈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산중의 미온적 접근 • 원주민/이주학부모 간 화합 미흡

구분	지역+센터		센터				
	참이슬마을학교 (하중초)	일본 커뮤니티 쿨	초록우산 우리마을의정부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CB)	완주 교육지원청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시흥 공교육지원센터 (ABC행복지원센터)
특성 • 재원 • 진행 • 리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재원 없이 시작, 이후 지자체 지원 • 마을에서 학교로 • 코디(지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 거의 없음 • 관주도로 실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지역/학교로 접근 •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재원 (완주군/중앙) • 지역 마을에서 학교로 접근 • 임○○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지자체 예산 • 교육청 주도 • 장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예산 융합(정보센터) • 센터에서 지역/학부모/학교로 • 이○○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교육청 예산 • 물리적 공간과 계획 수립 • 시장, 과장
방법론 • 계기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도서관 • 학교수업 연계 • 학교 활용 • 방과후학교 • 마을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들람이 계기 • 운영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프로그램 확장 • 오케스트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과 CB 사업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워크숍, 진척) • 학교 접촉 후 방과후, 진로 협동조합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 • 지역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교육 • 축제 (학교+지역) • 지역비즈니스 • 다양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발표회, 진로 교육, 인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에 대해 교사가 인식 하여 지자체에 요구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공간 확보 • 프로그램 질 향상 • 학생교류가 공동체 형성 • 아파트 공동체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구축 • 비예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에서 학교로 • NGO결합 -지역 소통참여 • 다양한 프로그램 -교와NET, 재능 나눔, 아동 성인 동아리 • 실태조사, 자원 발굴, 키맨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공동체 • 인식증가 • 주민 삶의 질 • 로컬에듀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확산 • 마을교육공동체 • HWSW 모델 • 학교 결합 시도 • 주민 직접 수요 조사 • 민 주도 모델 (예산과 공간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육과정 수립 • 인적 네트워크 수립 • 교사연구회 결합 • 혁신지구사업 모델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공간 협소 (확장성 의문) • 예산 부족으로 지속성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폐쇄성 • 국가정책 프로그램 • 시청 소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결합 안됨 • 주민 관심 저조 • 재정지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연계 시도 • 정치적 입김 • 지속성 없음 • 대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편차 • 거버넌스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공무원 파견 • 교사모임 결합 미흡 • 교육청의 높은 벽

실천의 실제에 나타난 공통점은 센터형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례는 특별한 재원이 없이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한 재원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센터형의 경우에도 특정한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확산 방향은 다양하나 동원할 수 있는 자원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도 알 수 있다. 핵심적인 공통점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키맨 역할을 하고 초기 방어 쇄를 당길 리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어디든 지역에 맞는 리더 발굴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규모의 측면에서 학교가 중심이 된 사례는 작은 마을 규모에서 활동하고, 지역이나 센터가 중심이 된 사례는 작은 마을보다는 큰 지역단위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은 학교 단위, 마을 단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성공적이다. 물론 큰 지역단위에서 지원하더라도 상향식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원주체와 그 단위, 사업주체와 그 단위가 구별되어야 좋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미 지역사회는 취약아동 돌봄,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등 교육이 학교만의 영역이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다. 실제 사례에서 드러난 마을교육공동체의 필요성을 다음과 정리해볼 수 있다.

- 1) 폐교 위기, 학교 자체의 생존, 생활지도(돌봄), 아동복지 등 현재 교육 시스템의 문제해결 능력 부재
- 2) 산업화와 경제성장 시대 인재양성에서 다양성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적 인재 양성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
- 3) 학부모들에 의한 기존 교육체계와 내용에 대한 변화 요구
- 4) 마을만들기, 지역만들기 활동의 확산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학교 참여 요구
- 5) 학교와 연관된 일자리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 6) 정치인들의 정치적 요구 증대



7) 큰 틀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상의 특징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학교, 지역, 행정 기관 등이 결합한 거버넌스 형태를 띤다는 점이다. 그 속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 1) 구체적인 삶과 진로와 연관
- 2) 역동적, 참여적, 개방적 성격
- 3) 지식 전달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역량을 키우는 방식
- 4) 사교육, 대안학교 중심이 아니라 공교육 변화 도모
- 5) 일부 공부 잘하는 학생 중심에서 학생 전체를 한 개인으로 중시하는 시각

결국 마을교육공동체는 ‘느슨한 네트워크형의 지역공동체 구축’에서 ‘지역주민이 지역 사회의 주인이 되는 본질적 민주주의 실현’하면서 ‘교육 본질에 접근’하고 ‘내용과 범위에 대한 무궁무진한 확산 가능성’을 확보한다. 마을이 학교를 발전시키고 학교가 마을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역적인 대응 수단이 마련되고, 교육주체가 발굴되고 성장하며, 현장 중심의 추진 기반이 마련된다. 물론 이에 못지않게 고민과 한계 또한 많다.

- 1) 모든 경우에 대해 리더(키맨)를 만들 수 있는가?
- 2) 시스템의 구축과 지원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 3) 초기에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아쇠 역할은 무엇인가?
- 4) 역할, 처우, 가치관 등을 고려할 때, 이런 활동이 교사들에게 가능한 일인가?
- 5) 학교 간 연계는 가능한 일인가?
- 6)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어떤 것이고 기존의 지원방식을 바꿀 수 있는가?
- 7)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공간은 마련할 수 있는가?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가? 학교의 공간은 충분한가?
- 8) 학교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소통 불능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 9) 여러 기관·단체 이해관계는 어떻게 풀 수 있는가?

마을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촉매가 필요하다. 그 촉매는 사람, 공간, 센터 등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학부모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잠정적 정의

사실 개념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서 살펴본 실천들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다. 마을교육공동체가 특히 더 그러하다. 다만 인식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상식적으로 잠정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마을교육공동체는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김용련, 2014).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의미는 사람들의 참여와 실천(기부, 협력, 의사결정 등)으로 교육에 대해 공동의 권한과 책임을 실천하는 일이다. 마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배울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는 소극적 협력에서부터 교육협동조합을 만들어 아이들의 교육, 복지, 생활 등에 관련된 적극적인 협력을 실천할 수 있다.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교육자원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이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의 자연, 사회, 삶 속에서 살아있는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와 공간을 제공받는 일이다.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것’은 진정한 교육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육적인 신념과 실천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른 공동체에 확산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이다. 지속가능성이란 그 안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의 학습결과로 검증받을 수 있으며, 그 학습의 결과는 아이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고 정주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개념이 바로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이다(김용련, 같은 글). ‘마을에 관한 교육’(learning about community)은 학생이 속해 있는 마을과 지역에 대하여 배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학생들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산업적 특수성과 발전 양상을 배우는 일이다.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마을지도를 만들고, 마을의 다양한 역사나 문화를 학교에 소개하는 일도 마을에 관한 교육이다.

‘마을을 통한 교육’(learning through community)은 그 지역사회의 인적·문화적·환경적·역사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형태를 말한다. 학생들은 마을의 교육 인프라와 자원을 통해 배움을 실천한다. 재능기부자들이 학생들을 위해 직업교육을 시키고, 문화·체육 시설과 기관들은 학생들을 위한 사회적 배움터가 되며, 마을의 생태계, 기업, 농장 등은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마을을 위한 교육’(learning for community)은 학생들이 지역사회 발전의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진로 역량을 키워주는 활동이다.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기반을 근거로 하는 문화, 자원, 사회, 경제 등의 학습은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이루고 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발한다. 마을을 위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게 되고, 이러한 고민과 배움의 결과는 그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된다.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되려면 일정하고도 지속가능한 ‘시간’ 속에서 정해진 ‘공간’을 오가며 활동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일일 것이다. 교육주체들이 시간의 주체가 되면서 학교와 마을 사이에서 교육공동체가 되고, 나의 공간과 너의 공간이 연결되면 우리의 공간이 되고 마을이 된다. 이들이 마을에서 교육주체로서 대화를 통해 공동의 지향점을 갖고 함께할 때 비로소 마을이 만들어진다. 학교가 마을학교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학교가 하나의 작은 사회이기 때문이고, 이들이 시민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마을이 사회이기 때문이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학교+마을 교육희망 만들기’

사실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말에 우리가 담고 싶은 교육희망이 들어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말하는 ‘마을’은 학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학교와 마을, 이 양자는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변화한다. ‘학교가 마을이다’거나 ‘학교 밖 학교’라는 말이 그런 차원에서 생겨난 말들이다. ‘마을’이라는 말 속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과 지속가능한 시간 그리고 다양하고 독특한 마을의 현상이 들어 있다. 마을의 공간과 시간 그리고 현상은 수업, 교실, 교육과정, 학교, 축제 등과 잘 만난다.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말하는 ‘교육’은 ‘육망’이 아닌 ‘희망’의 교육을 말한다. 입시와 수능을 외면할 수 없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교육의 체질을 바꿔나가려면 보다 큰 시야와 전략이 요구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진로진학의 문제, 사교육의 문제, 학교 주체성의 문제 등 난마 같이 얽힌 문제들의 실마리이고 그 출발점일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의 분리, 학교와 교육청의 분리, 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리, 교사와 교사의 분리, 학생과 교사의 분리, 학생과 학부모의 분리 등을 넘어서서 이를 통합적으로 연결 짓고자 한다. 공동체(community)에서는 상식(common sense)과 소통(communication)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의 진정한 독립성과 공동체성이 상정된다. 따라서 마을교육공동체는 민주주의학교이자 지역사회학교 개념을 가지고 있다. 미래의 학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풀무학교 홍순명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학교는 지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교육은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는 공동체의 가치 기반인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것은 모두 교육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순명, 2006: 267)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자체의 개혁이 아닌 지역사회 교육개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목표와 노력, 투자(자원)등 많은 활동과 내용이 학교에 집중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사업의 확대 발전된 모습은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개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으로 전환해야 하며, 사업의 초점도 학교개혁이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자원과 인프라 발굴과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부담과 책임이 학교에서 지역사회 또는 지원센터의 역할로 이전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마을에서 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다.

협력적인 교육거버넌스 체제 구축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명목상으로만 구축되어 있는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새롭게 살피고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 학생들에게 마을을 위한 교육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교육청의 전문성과 지자체의 자원과 행정력, 지역사회의 참여, 학교 개혁 등을 함께 아우르는 협력적 관계 형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마을교육공동체의 기획과 실행을 위한 신설과, 중간지원조직 등을 만들어 학교공동체와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지원하고 구축하려는 일도 마을을 위한 교육에 속한다.

이제 우리에게 희망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어떤 가치로 접근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는 마을교육공동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주요 질문이다.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이유와 가치, 만나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와 주민, 만나는 내용과 방법은 지금 우리 안에 길이 있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 김용련(2014), “경기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 마을교육공동체 토론회자료집, 새로운학교경기네트워크.
- 김영선·이경란(2014), **마을로 간 인문학: 도시마을 배움의 공동체를 꿈꾸다**, 당대.
- 박원순(2011), **마을, 생태가 답이다**, 검동소.
- _____(2010), **마을이 학교다**, 검동소.
- 서용선 외(2016),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탄생, 뿌리 그리고 나침반**, 살림터.
- _____ 외(2015), **혁신학교의 거의 모든 것**, 맘에드림.
- 엔도 야스히로., 김찬호역(1997),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마을만들기**, 황금가지.
- 홍순명(2006), **풀무학교 이야기**, 부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